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Identity Negotiation of
Children Born in China of North Korean Defectors

2021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김 은 희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Identity Negotiation of
Children Born in China of North Korean Defectors

2021년 2월

지도교수 김 영 순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김은희의 학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1년 2월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 경험의 본질과 정체성 협상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 경험은 어떠한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다.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직면한 상황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현황과 특징,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주 경험과 정체성 협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개인 및 그룹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 경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이주 전 중국에서 엄마의 돌봄 부재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이주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탈북을 실감한다. 이주 초기에는 낮은 환경에서 맺는 관계맺기가 가장 의미있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하나원에서부터 출생국에 의한 나뉘는 경험을 하고, 학교에서 한국 친구 사귀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꼈다. 정착기에는 언어의 한계, 상처투성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 여기는 경험도 출되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은 개인, 가족, 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개인 영역에서는 이주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자신을 발견하였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타자와 사회의 차별적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강점을 발견하여 스스로 학습 태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가족 영역에서는 엄마에 대한 불만과 서운한 감정을 극복하고 엄마의 삶

을 이해하고, 엄마의 힘듦을 함께 나눌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어지는 홀로서기의 삶은 엄마의 돌봄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나 독립하고자 하는 태도로 수정됨을 알 수 있었다.

사회 영역에서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기’의 형태로 정체성 협상을 이루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 요청하기, 중국어로 친구 사귀기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 주로 탈북배경과 중국 출생 친구들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그 안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탈북민으로 여기면서도 탈북민에 대한 거리를 두어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했으며, 친구들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다양한 반응으로 비판적으로 대응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정체성 협상이라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류 사회가 요구하는 정체성과 시민성 모색이 아닌 그들 스스로 인식하는 ‘자아’에 대해 존중의 자세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새로운 문화집단과 접촉을 하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정체성 변화를 경험한다. 아동청소년기의 이주는 자아정체성, 국가정체성, 언어정체성, 사회문화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이주 경험과 정체성 협상에 대한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다양하고 개방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문화적응은 주류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삶의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이주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결을 만들어 간다. 개인, 가족, 사회 영역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변화시키며 환경에 적응한다.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과 한계에 집중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현재의 삶을 영위해가려는 모습을 주체적 태도로 해석한 데 연구의

의를 둘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지속적인 이중언어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 마련, 교과학습 지원을 위한 충분한 한국어교육 제공, 부모-자녀의 정서적 공감을 위한 지원, 친구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이주 경험, 정체성 협상

목 차

국문초록	i
목 차	v
표 목차	viii
부록목차	v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동기	4
II. 이론적 배경	6
1.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6
1.1.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현황과 특징	6
1.2.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선행연구	19
2. 이주 경험과 정체성 협상	24
2.1. 이주 경험과 정체성	24
2.2. 정체성 협상	28

Ⅲ. 연구 방법	33
1. 연구개요	33
2. 연구참여자	36
3. 자료수집 및 분석	39
4. 윤리적 고려	41
Ⅳ. 연구결과	45
1.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 경험	45
1.1. 이주 전: 중국에서의 회색빛 삶	46
1.1.1. 엄마의 부재	46
1.1.2. 탈북을 마주함	48
1.2. 낯선 한국에서 관계맺기	50
1.2.1. 하나원에서 느낀 나뉘	50
1.2.2. 제일 어려운 숙제, 친구 사귀기	52
1.3. 넘어야 할 장벽	57
1.3.1. 마음껏 말하고 싶어	58
1.3.2. 상처투성이 가족과 함께	60
2.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	64
2.1. 개인 영역: 삶의 이야기에서 나를 발견	65
2.1.1. 선택 없이 시작된 이주에서 ‘나’ 를 이해	66
2.1.2. 성찰에서 발전한 나의 강점	68

2.1.3. 중국과 한국, 모두 내 나라	73
2.2. 가족 영역: 미운 가족을 가슴에 품고	79
2.2.1. 엄마의 삶을 이해	79
2.2.2. 나의 자리 찾기	82
2.2.3. 계속되는 홀로서기	83
2.3. 사회 영역: 우리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기	85
2.3.1. 의사소통의 한계 극복하기	86
2.3.2. 통하는 친구들에게서 안정감 찾기	89
2.3.3. ‘다름이라는 시선’에 대한 거리두기	92
3. 소결	94
V. 결론	96
1. 요약	96
2. 논의 및 제언	99
참고문헌	103
부록	108
ABSTRACT	117

표 목차

<표 II-1> 탈북배경청소년의 입국유형 및 관계 부처별 사용 용어	8
<표 II-2> 각 부처별 지원 법령과 내용	10
<표 II-3>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관련 지원현황	12
<표 II-4>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13
<표 II-5> 출생국별 정규학교 재학현황	14
<표 III-1> 연구참여자의 특성	38
<표 IV-1>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 경험	45
<표 IV-2>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	65

부록 목차

<부록 1> 연구참여 설명서 및 동의서 학부모용	108
<부록 2> 연구참여 설명서 및 동의서 학생용	112
<부록 3> 면담질문 개요	11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 경제선진국 반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분야가 있다. 바로 합계 출산률이다. 170개 국가 중 출산률 0.92로 170위를 기록하여 국가 존립 위기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중대한 국정 현안으로 떠올랐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구절벽이라는 중대한 위기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자녀 세대들이 있다. 바로 결혼이주여성의 본국에서 자란 전혼(前婚) 자녀, 북한과 제3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다. 한국사회는 이들을 ‘중도입국자녀’, ‘이주배경청소년’, ‘탈북청소년’이라 부른다. 한국에서 출생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주민 2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온정주의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다. 비록 현재까지는 그 수가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볼 때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할 존재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와 함께 2,700명을 넘어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먼저 온 통일’, ‘미래통일세대’로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캄보디아, 몽골 등 제3국에서 체류하는 과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이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출생지는 대부분 중국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1-2만여 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신현욱, 2011; 김정림, 차현지, 2012).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법적 용어가 있지만 제3국이 대부분 중국이라는 선행연구의 근거와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모두 중국 출생자라는 공통점을 가졌기에 본 연구에서는 ‘중

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이주민 소수자, 이민자 2세,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또는 탈북학생의 포괄적 범주 안에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다루고 있기에 이들의 독특한 경험과 맥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연구주제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실태조사, 법적 지위, 교육 소외 등을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 문헌연구의 2차 자료가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들어 양육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역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직접적인 경험이 배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출생과 성장, 이주 목적과 과정, 한국 정착 과정에서 북한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탈북’이라는 부모의 이주 배경과 ‘중도입국’이라는 본인의 이주 배경이 결합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과 그를 둘러싼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구성된다(이은혜, 2018; 조진경, 2016).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법적 지위 변화, 가족의 해체와 형성, 돌봄과 학업의 공백, 분단이라는 독특한 정치적 상황 등 다른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않은 맥락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피상적이고 무차별적인 이해는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이기영, 김민경, 2015). 언론과 학계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결핍을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문화적응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들을 적응과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주체적인 행위성에 대한 이해는 간과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주체성과 다양성을 지닌 행위자로 해석하여 이들을 대하는 고정된 시각의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관점의 전환을 위해서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 환경과 특별한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이주의 전 과정을 통해 경험한 것은 무엇이며, 이들은 이주 경험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며 협상하는가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다양한 삶의 결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시민의식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교육 소수자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제반환경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북한과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다. 특히 출생지가 모두 중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지를 이주 경험과 정체성 협상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사회구조적 환경과 성장과 이주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주 경험을 통해 어떻게 정체성을 변화시키며 재구성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연구 동기

연구자는 어린 시절부터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 활동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식량난 지원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며 생활 속에서 통일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은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 이주민과 그들의 가정, 이주민 2세로 확장되었다. 그러던 중 2019년부터 I시에 있는 중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을 하며 탈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탈북민 주거밀집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탈북학생 밀집학교이다. 탈북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교과 특별반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여 학습 및 언어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어 학급에 오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에는 북한보다 중국 출생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은 유독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하고 소위 ‘탈북 애들’ 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연구자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지금이라도 중국에 가고 싶어요. 여긴 말도 안 통하고, 힘들어요.”, “저 그래도 중국에서는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애들이 우리한테 중국으로 꺼지라고 해요. 한국 애들 싫어요.” 연구자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학생들이 얼마나 고단한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유독 학교생활을 어려워했던 한 친구는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소식을 전해 연구자로 하여금 학생들을 더 살피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끼게도 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에 새터민지원센터에서 학습지도 자원봉사를 하며 또 다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만났는데 이들에게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연구자를 붙잡고 있던 학생, 학습에 두각을 나타내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하여 장학금을 타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 연구자로 하여금 ‘똑같은 아이들인데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도 궁

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연구자는 오히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의외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곧, 연구자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해 ‘그 학생들은 원래 다 그래’ 라고 여기는 편견과 부정적 사고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는 것이었다. 이주민을 편견 없이 대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연구자의 실제 삶에서는 편견과 모순이 여과없이 드러났던 것이다.

연구자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다양한 삶을 지켜보며 이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적부진아, 학교부적응자, 주눅들어 있는 소심한 아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무엇이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사회적 타자로 만들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에서의 출생과 성장, 한국으로 이주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꿈꾸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인가? 연구자는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의미 있는 사회적 존재로 드러내기 위해서 정체성 협상이라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고, 정체성의 변화와 재구성을 정체성 협상으로 이해하여 연구를 시작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이지만 연구참여자 모두 중국에서 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 연구참여자 지칭에 있어서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로 기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1.1.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현황과 특징

1990년 중반 이후 김일성 사망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고 이 시기에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가는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난 이후 여성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현상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신현옥, 2011). 북한이탈여성들은 신변을 보장받고 도시에서 돈을 벌기 원하지만 탈북하는 동시에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매매혼, 성매매 등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제3국¹⁾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다(신현옥, 2011; 이기영, 김민경, 2015; 이춘호, 전득안, 2015).

이들은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 어머니의 신변노출 위험으로 인해 호구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무국적 상태로 지내기도 하며 호구가 있더라도 가짜 호구나 사망한 사람의 호구를 받아 살아가기도 한다. 최근 중국 정부가 사회적 문제 발생을 우려해 호구를 일부 부여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실질적인 호구 등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양영자, 2016; 김두연, 2019). 중국에서 탈북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므로 중국 공안에 잡히면 확대, 구금, 강제송환에 처하게 되고, 복송 후에는 공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가기 때문에 늘 신변노출의 위험 속에서 살며, 단속

1) 제3국의 개념은 제1국과 제2국을 벗어난 국가로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를 말한다. 제3국을 중국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98.6%가 중국에서 출생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 한정지어 말할 수 있다(남북하나재단). 보통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국에서 체류하며 이 외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을 거치기도 한다.

을 두려워하여 가출하기도 한다(양영자, 2016).

자녀들은 어머니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잦은 이사를 경험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또한 어려운 가정경제를 꾸려가기 위해 장시간 집을 비우는 어머니의 부재를 경험하며 돌봄 공백에 놓여 지낸다. 어머니의 부재로 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어떤 경우에는 고아로 버려지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나 대략 1만~2만여 명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신현옥, 2011; 김정립, 차현지, 2012; 이기영, 김민경, 2015). 비인권적인 상황과 강제 북송의 공포를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탈북여성들은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녀를 남겨두고 혼자 오기도 하고, 중국 가족들 몰래 자녀만 데리고 오는 선택을 하게 된다. 탈북 이후 중국에서 불안정한 어머니의 삶을 몸소 경험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어머니의 탈북과정을 출생 배경으로 지닌 존재로서 정체성 혼란, 교육기회 제한, 어머니와의 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안고(양영자, 2016) 한국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현재 탈북청소년으로 명명되는 이들은 출생지역과 한국 입국 당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북한에서 출생하여 가족과 함께 입국한 탈북청소년, 북한에서 출생하였으나 가족 없이 단독 입국한 무연고탈북 청소년,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탈북하여 중국 등 제3국 체류과정 중에 출생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에 입국한 탈북 부모가 출생한 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이기영, 김민경, 2015). 최근에는 탈북청소년과 무연고탈북청소년보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1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이 법의 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법제처, 2014). 또한 동법 제5조 2항에서는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직계혈족의 세대 단위지원도 인정하고 있지만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세대원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불분명하다.²⁾

다음 <표 II-1>은 탈북배경청소년의 입국 유형에 따른 관계 부처별 사용 용어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입국 유형에 따라, 동반입국과 초청입국으로 나누어지는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출생지를 구분하지 않고 각각 탈북학생과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정 자녀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통일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탈북청소년, 무연고탈북청소년과 구분지어 사용되고 있다.

<표 II-1> 탈북배경청소년의 입국유형 및 관계 부처별 사용 용어

출생국	입국 유형	관계 부처별 사용 용어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북한 출생	가족 동반입국 가족 선입국 후	1)탈북청소년	탈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 다문화가정자녀
	단독입국	2)무연고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가족 동반입국	3)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초청, 안내인을 통한 입국			
남한 출생	해당 없음	4)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출처: 이기영, 김민경(2015), 성지영(2018)

2) 북한이탈주민법상 교육지원사업은 출생지를 기준으로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에게만 해당된다.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 교육지원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탈북청소년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2017년 3월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 2항 개정을 통해 탈북청소년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하였지만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한해서만 법이 적용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24조 2항은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는 탈북청소년(북한이탈주민법), 중도입국청소년(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정청소년(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마련된 것과 큰 차이점을 갖는다.³⁾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지닌 다양한 특성이 중첩된 특수한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포괄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중첩성이 이들을 주변화하여 제도에서 배제시키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다(정주영, 박정란, 2016).

다음 <표 II -2>는 각 부처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관련 법령과 지원 내용을 탈북청소년과 비교한 것이다.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의 지원은 각 부처별 근거법령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으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탈북청소년 지원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북한 출생자나 제3국 출생자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한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출생 배경에 따라 각각 탈북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구분하여 지원하

3)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및그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고 있다.

한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남북하나재단의 가족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복되어 지원된다는 지적도 있다(이기영, 2014). 이러한 문제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이 중복되어 비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강보석, 2018).

〈표 II-2〉 각 부처별 지원 법령과 내용

구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출생국	북한	남한이나 북한 이외의 제3국
부모 출신국	북한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호 및 정착지원 대상	· 비보호 대상으로 분류되나 남북하나재단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 · 다양한 민간지원 단체의 장학금 수혜대상
	하나원 입소교육	동반입국 시 하나원 내 재원 가능
	· 예비학교 설립, 운영 · 교육부 인정 특성화 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	· 북한이탈주민법 교육지원에 예비학교 설립 및 운영 대상에 포함
교육부	· 대학 특례 입·편입학 · 학비지원(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 50% 보조)	· 2017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신설로 지원 범위 확대(세부 내용은 표 II-3 참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적용 및 지원 대상	탈북학생으로 인정해 교육 지원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의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대상 · 「한부모가정지원법」 지원 대상	
	탈북청소년으로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다문화가정자녀로 지원
외교부	해당 없음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에 의거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대상에 포함

출처: 신현옥(2011), 강보석(2018)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권, 법적 지위, 정착 지원 등에 대한 한계의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7년 2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이 신설되어 점차 북한 출생자와의 지원 및 혜택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원을 퇴소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자녀 1인당 400만 원의 양육가산금 지급, 2019학년도부터 대학 정원 내 특별전형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포함, 민간 기부금을 활용한 대학 첫 학기 등록금 지원, 이중언어 강사 배치 확대 및 맞춤형 한국어 교재 보급 등을 골자로 하여 점차적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통일부, 2017).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관련 제도는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의 내용과 같이 2017년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정착금 산정시 가구원 수에 산입되지 않았고, 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은 탈북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착금을 받아왔다(통일부, 2017). 2017년도 신규 입학자부터 대학 첫 학기 등록금의 실비를 지원, 2019학년도부터 대학 정원 내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법적 지위는 명확하지 않으며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II-3>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관련 지원현황

구분	지원 제도 및 기관	지원 내용	
신설 (2017. 2)	자녀양육 가산금	·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조부모)에게 지급 · 자녀 1인당 400만 원 지원 · 2017년 2월 중순부터 시행	
	정원 내 특별전형 대상	·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정원 내 특별전형 대상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포함	
	첫학기 등록금 지원	· 2017년 입학자부터 첫학기 대학등록금 실비 지원 · 민간 기부금 활용	
	이중언어 강사 배치 확대 및 맞춤형 한국어 교재 보급	· 이중언어 강사 배치 확대 · 맞춤형 한국어 교재 보급	
기존	하나원	· 영아반 및 하나돌학교 입소, 학력인정 지원 · 한부모 가산금 지급: 세대당 360만원(자녀와 동반입소한 한부모 가정)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 초등 공부방 사업 지원 · 청소년 학습지도(학습 멘토링) · 대학진학 및 적응지원프로그램	
	대안학교	· 탈북청소년 특성화 중·고등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학비 무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 일반학교 재학중인 탈북학생 적응 지원, 1:1 맞춤형 멘토링
		미인가 대안학교	· 남한사회 및 정규학교 적응 지원(정규교과 수업, 특성화 수업, 정서안정 프로그램, 동아리, 체험활동 등)
		방과후공부방	· 방과후 학습지도
		방문학습지	·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영어 화상교육	· 9세 이상 청소년 대상,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출처: 통일부(2017)

북한이탈주민 입국자는 2011년 2,706명으로 최대 정점을 찍은 후 그 이후 연간 입국 인원이 1,000명 단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입국자 중 여성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맞물려 이들이 제3국에서 체류하는 과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탈북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을 집행한다. 다음 <표 II-4>는 탈북학생의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을 보여준다. 교육부의 2019년 탈북학생 통계현황을 보면 4월 기준 초등학교 877명, 중학교 738명, 고등학교 752명, 기타학교와 전일제 대안교육시설 394명으로 총 2,761명이 기초교육 내 재학 중에 있다. 2019년 자료에서는 연령에 따른 학교급 분포가 초·중·고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2005년 초등학생이 58.7%에서 2019년 34.6%로 감소한 것에 비해 고등학생은 10.2%에서 29.7%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 이는 앞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학생의 비율이 더 커지며 이에 따라 심리정서, 학업과 진학, 진로와 취업, 정체성 형성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대비한 교육적·사회적 준비의 필요성을 제시함을 알 수 있다.

<표 II-4>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학교유형								전일제 대안교육시설**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457	420	390	348	358	394	73	91	230	2,761
	877		738		752		164			
	2,531									

*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9)

다음 <표 II-5>는 출생국별 정규학교 재학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 2,531명 중 북한 출생이 982명,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이 1,549명으로 나타나 출생지에 따른 구성 비율이 각각 38.8%와 61.2%를 보이고 있다. 제3국 출생 학생은 2011년 608명(36.2%)에 불과했지만 2015년 기점으로 1,249명이 되어 전체 탈북학생의 50.5%를 차지하였다. 북한 출생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제3국 출생 학생은 2019년 61.2%로 크게 증가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 지도를 바꾸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재학생 수는 북한 출생 학생의 약 2.7배로 나타났고, 중학교에서도 제3국 출생 학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 출생자보다 제3국 출생자의 비율이 높았다(교육부, 2019).

<표 II-5> 출생국별 정규학교 재학현황

(단위: 명, %)

구분	재학생수			기타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북한 출생	237(27)	288(39)	378(50.3)	79	(48.2)	982	(38.8)
제3국 출생	640(73)	450(61)	374(49.7)	85	(51.8)	1,549	(61.2)
계	877(100)	738(100)	752(100)	164	(100)	2,531	(100)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9)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수가 북한 출생 자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원 제도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북한 출생 자녀들과는 출생과 성장, 이주와 정착 배경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전체 집단에서 접근

한 연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독특한 경험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연구가 부족하다(오인수, 노은희, 2019).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수나 현황에 대한 자료는 교육부가 탈북 학생 재학 현황 중 제3국 출생을 구분하여 조사한 것에 기초하여 대략적인 규모와 분포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다(신현옥, 2011; 무지개청소년센터, 2016). 부모와 동반 입국한 후 하나원에 입소하여 삼죽초등학교와 중등 교육기관인 하나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자녀들의 경우는 수를 파악할 수 있으나 초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하나원에 입소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한국에 진입한 이후의 주요 문제는 정체성 혼란, 심리·상담 문제, 제도적 지원 문제, 가정상황의 불안정, 학교 교육 및 한국어 능력(신현옥, 2011; 이기영, 김민경, 2015; 김윤나, 2014; 양영자, 2016; 김두연, 201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급된 내용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출생과 성장, 이주 배경과 이주 과정, 이주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관련하여 드러난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출생과 입국 과정이 상이한 탈북청소년, 무연고탈북청소년,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각 집단들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요구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관련된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한국 입국 초기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과 또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탈북청소년은 비교적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은 없으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에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주 후 한국어를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강보석, 2018).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경험하는 언어적 상이성은 초기 한국사회에 적응할 때 학습 성취와 또래관계 맺기에 있어서도 방해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윤나, 2014; 김명선, 2015, 양혜린 외, 2017).

신현옥(2011)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한국 입국 후 가장 큰 어려움을 언어 문제로 언급하였다.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아버지가 한족이거나 한족 학교를 다닌 경우 한국 입국 전 한국어를 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한국어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글을 읽고 문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국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평균 3.49년이 지나면 한국어를 잘한다고 스스로 느끼며, 학교에서 한국 아이들과 놀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 언어적응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되며 자신의 내외적 환경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양혜린 외, 2017). 따라서 중요한 심리적 학습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출생과 양육 환경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정부의 보호, 비보호의 차이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제3국 출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부모의 존재로부터 의도치 않게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무국적 신분, 어머니의 신분 위협으로 인한 위조 호구등록, 합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단절 및 제한적 교류만 하게 되는 등 취약한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며 성장하게 된다(김윤나, 2014).

또한 한국 학생들의 편견이 두려워 자신의 출신 배경을 숨기며 생활함으로써 또래 관계에서 큰 부담과 불안을 느끼기도 하는데(전혜림, 2014) 이런 상황은 결국 자신의 국적을 바꾸어가며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한다(신현옥, 2011). 부모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탈북민이지만 본인은 다문화정책 적용 대상자가 되어 한 가정 안에서도 출신 배경으로 인해 각각 다른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는 것도 이들이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불안정한 가족 관계를 경험하며 성장했으며 한국 이주 후에도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신분 노출로 인한 강제 복송의 위협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된다. 또한 경제적 능력과 노동력이 없는 중국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 경제를 도맡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우고 일하러 나가기도 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고된 노동을 도맡아 하고, 시댁 식구들의 감금과 감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고통스런 삶은 탈북여성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자녀에게도 이어진다(신현옥, 2011). 엄마의 불안하고 고된 삶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며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공포와 증오를 느끼기도 하며 어머니의 부재 동안(복송,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장기간 출타) 아버지와 지내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방임과 학대에 노출되기도 한다.

가족은 중요한 사회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에도 탈북청소년의 경우 가족해체를 경험하거나 부모가 없는 무연고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도 이주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성이 반복되면서 겪는 가족 불안정성이 심각하게 나타난다(연보라, 김정근, 2017).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경우에도 가족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탈북을 거쳐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자녀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한국에 와서도 엄마의 부재를 경험하며 장시간 혼자 생활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엄마와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며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만나고 있는 실무자들은 아이들을 다시 중국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중국으로 보내 신분을 획득하기도 하고, 한국 정착 생활이 어려워 중국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다(신현옥, 2011). 김유연 외(2018)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보다는 실제적인 정서적 교류가 가족 유대감 형성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방식,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심리, 부모의 더딘 한국 생활 적응으로 인한 의사소통 단절은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명선, 이동훈, 2013).

넷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제도 안에서 생활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정책의 최근 이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증가와 이들의 정책적 지위 정립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이미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을 양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아도 수료생 통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을 포함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정책적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의해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청소년과는 달리 사회적 지원 제도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김정림, 차현지, 2012; 김윤나, 2014; 양영자, 2106; 김현경, 2015). 그러나 법률에 대한 임의적인 확대 해석을 통해 실무상 지원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법과 현실의 괴리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김정림, 차현지, 2012).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개념이 보다 다양한 이민자 자녀 집단을 포괄하게 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점차 다양한 이민자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입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 이들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4)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뜻한다.

하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보호 및 지위개선을 법적으로 검토한 김정립과 차현지(2012)는 탈북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체류의 장기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비율 등을 고려한 국적 인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사실상의 탈북임이 입증되면 귀화절차와 별도로 심사를 거쳐 국적을 인정하고,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 개정과 보호 범주 확대를 제안하였다. 무지개청소년센터(2016)는 현재의 지원정책이 주로 학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가족단위 지원,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들을 포함하는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종합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2.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선행연구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연구는 2010년에 들어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2015년 말을 기점으로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이 북한 출생자를 추월하여 탈북청소년 인구구성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2017년 초, 통일부의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기면서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정책 및 실태조사, 학교와 사회문화적응, 가족 경험과 이주 경험, 이중언어와 한국어 학습 등을 주제로 담고 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연구 초기는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신현옥(2011)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기초조사와 학교 적응 실태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이주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 해체와 재구성으로 인한 가족 불안정,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또래 관계 형성과 기초학습의 어려움, 지원 서비스와 법적 제도의 미비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음을 드러냈고,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가

정환경을 위해 가족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다룬 김윤나(2014)는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관련 부처의 지원 통일, 판명 기준 완화, 가족 구성원 단위의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고 김정림, 차현지(2012)는 이들의 보호 및 지위 개선을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기영, 김민경(2015)의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개념을 탈북배경청소년 명칭을 사용하여 유형을 다양화하여 각 유형에 따른 지원정책과 서비스 환경을 진단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른 보호결정 여부, 출생국에 따른 지원 혜택의 차이 발생, 관련 부처 서비스의 통일성과 연계성 부족, 수도권 대 지방의 서비스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한 무지개지원센터(2016)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집단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성장배경에 따른 이중언어 교육역량 강화와 적합한 가족관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최근 이루어진 김두연(2019)의 연구에서는 중국 출생자의 4중 고통을 국가 정체성 혼란, 문화충격, 모자관계 설정 어려움,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학교교육 및 교육권에 관한 연구는 2016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양영자(2016)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한국교육에서 갖는 존재 의미를 전환기적 존재와 소수자 교육의 재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하고 맥락화된 특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강보석(2019)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통합교육 측면에서 사회통합 양상을 연구한 김향숙(2017)은 대안학교 수업이 제도권의 일반 학교로 편입학을 통한 사회통합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학제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제언을 통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와 교육권 보장과 지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생활 적응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학교생활 적응 경험을 분석한 김명선(2015)은 이질감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중심현상으로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서 친구 관계를 위한 노력, 학업에 대한 의지, 내적 의지 등의 전략은 본 연구의 주제인 정체성 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혜린 외(2017)는 언어구사능력의 한계가 또래 관계 및 학업성취로 인한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여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적응에 언어교육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보라, 김경근(2017)은 부모-자녀 관계와 교사 관계 및 교우 관계가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자본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창작음악극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김소리와 문소영(2018)은 창작음악극이 학교환경적응, 친구적응, 교사적응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창작극 활동 참여를 통한 음악적, 상호적 만남을 통한 학교 적응, 질서와 규칙 이해, 대인관계기술 향상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다룬 조현정(2019)은 학교폭력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효과적인 교수법과 맞춤형 교육과 함께 정서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족 경험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양육하는 주양육자, 어머니의 경험과 인식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탈주민 여성 혼자서 중국 출생 자녀를 데리고 동반(혹은 초청) 입국하여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례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통된 내용은 이주 과정에서 경험한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 부모 자녀와의 심리적 갈등, 경제적 어려움, 일과 돌봄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육자의 교육 경험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을 위한 역량 부족, 차별문화로

인한 학부모 역할의 어려움, 자녀와의 심리적 갈등, 경제적 지원의 한계 등이 나타났다(김윤나, 2014; 김영선, 2017). 양육 경험으로는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돌봄과 양육 병행의 한계, 양육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심리적 어려움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가족 단위의 지원과 돌봄과 일병행을 위한 안전망과 실제적인 대책이 요구됨을 보여주었다(이기영 외, 2013; 김현경, 2015; 이기영, 김민경, 2015).

자녀가 직접 경험한 가족 경험에 관한 연구는 2015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한국 입국 전후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입국 전 중국에서는 주로 엄마와의 분리, 엄마의 불안정한 신분, 아버지의 폭력과 경제적 무능력함 등을 경험하고 한국 입국 후에는 새로운 가족 형성에서 오는 정서적 혼란, 부모 세대와의 세대 및 문화간 갈등, 돌봄의 부재, 소통과 정서적 유대의 결여 등을 또다시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정주영과 박정란(2016)은 어머니와의 낯선 환경 적응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부모교육, 중국 가족과의 지속적 교류, 문화 차이를 고려한 언어교육과 진로지도를 제언하였다. 김유연 외(2018)의 연구에서는 이주 2세대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갖는 행복의 특징을 주관적 안녕이라고 정의하고 부모의 동반입국 여부, 객관적 조건보다 담임교사의 지지 및 교우 관계의 사회적 관계가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도지원과 황명진(2020)은 이주 경험의 본질은 문화적응이 아니라 가족에 있다고 보았으며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이주 후에도 계속되는 돌봄 공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노력 과정 자체를 자기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으며 돌봄 공백과 심리·정서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 경험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가족 관계가 이주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와 만족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수진과 김현주(2016), 고은혜와 배

상률(2017)은 가족 유대감이 사회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중도입국 청소년 가족을 위한 전문적 조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배경을 가진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 관계 경험은 이주를 경험한, 특히 중도입국한 청소년과 동일한 맥락에서 보편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중언어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었다. 기초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19년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이들이 가진 언어적 자원을 강점으로 보는 교육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한 한하림(2014)은 제3국 출신 탈북아동이 경험하는 언어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낮은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학습 장애와 교우 관계 형성과 건강한 자아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체계적 프로그램과 정규학교 입학 전 한국어 집중 교육을 제안하였고, 이후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중언어사용을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 제시한 연구도 진행되었다(황미혜, 2019).

2. 이주 경험과 정체성 협상

2.1. 이주 경험과 정체성

이주(migration)란 국가의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이다. 세계화의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이민, 해외취업, 유학, 여행 등으로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게 되었다. 이주민들은 새로운 정착지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접촉하며 일어나는 현상이다. Berry(1997)는 문화적응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주류 사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긍정과 부정의 정도로 측정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⁵⁾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문화적응을 새로운 문화에 얼마나 동화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인이 문화접촉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적인 측면을 놓치고 있다(김영순, 2020). 또한 베리의 문화적응 모델은 현대 이주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 이주는 난민 혹은 이민으로 단순하게 나타났다면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는 더 다양하고 복잡한 동기와 목적이 다양화되었으며 맥락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진경과 양계민(2004)은 베리의 문화적응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특정 전략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전략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 전략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용하는 주언어를 집과 학교, 가족과 동료 사이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전략을 바꾸는 것으로 연령이 변함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

5)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의 관계를 유지하면 통합,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를 추구하는 것을 동화, 자신의 정체성만 유지하고 주류사회의 문화를 거부하는 분리, 자신의 정체성과 주류사회 문화를 모두 거부하는 주변화로 설명하였다.

할 수 있으며 셋째, 개인 또는 집단이 선호한 전략을 주류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문화적응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문화변용(acculturation)은 문화 집단과 집단 구성원이 접촉한 결과로 발생하는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변화과정이다. 문화변용은 문화 간 접촉으로 문화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적응을 낳는다(Berry, 2020). 문화변용 과정의 결과를 문화적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영순, 2020).

Berry는 문화적응의 과정을 이주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접촉 이전기, 접촉기, 갈등기, 위기기, 적응기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 경험을 문화접촉과 적응과정을 토대로 삼아 구분하였다. 이주를 결정하기 전 중국에서의 생활과 이주를 시작하여 한국에 오기까지를 이주 전, 한국에 이주하여 하나원과 학교 생활을 처음 접하는 이주 초기, 가족과 친구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현재의 삶을 정착기로 보았다. 이주민이 새로운 환경에서 마주한 문화 차이를 중심으로 이주 경험을 살펴본다면 개인의 문화적응 전략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주민들은 문화변용 과정에서 불안, 우울, 불확실성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문화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도전에 대해 특별한 종류의 반응을 보인다. Oberg(1960)는 이 반응을 문화 충격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Berry(2020)는 오베르그의 문화 충격 개념이 문화 접촉의 어려움만 포함하는 부정적 용어라고 비판하며 스트레스를 새로운 문화의 도전에 대한 대처전략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적응이라고 보았다.

Berry(2020)는 스트레스 경험의 원칙을 문화 간 상호작용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을 다양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지배적 문화의 편견과 차별, 비지배적 문화의 교육 및 리더십 자원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정진영과 양계민(2004)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 성격, 사회적 지지, 대처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소유 여부, 문화적응 방식과 인구학적 요인을 스트레스 변인으로 삼았다. 특히 친한 사람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대처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되었는데 같은 나라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중도입국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교사, 또래의 지지와 친밀도가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같은 나라 출신의 친구들과 정서적 교류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접촉의 결과는 정형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문화접촉 이후 삶에 대한 기대에서 차이를 가지며 모든 사람들이 지배 문화와 비슷하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Berry, 2020). 주류 집단은 이주민들이 선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적응 능력 부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문화는 집단의 필요와 경험, 그것과 실제의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재창조된다(Castle & Mark, 2013). 따라서 문화변용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전략은 자신들의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도적 선택, 주체적이고 다양한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김영순(2020)은 개인의 적응은 모든 영역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선별적 전략을 실천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소속감과 문화 정체성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문화적응의 장기적 결과는 심리적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 간문화적 적응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적응을 통해 개인은 타자와 연결된다(Berry, 2020). 사회적 타자와의 연결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 정체성,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나의 존재와 가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맥락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개인의 정체성,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집단 정체성, 문화 정체성, 종교 정체성, 성 정체성 등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분류할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정체성은 정확히 영역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정체성은 개인을 둘러싼 집단, 민족, 문화, 국가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rikson(1968)은 정체성을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된 자기의식으로 자신

의 자아상과 세계관, 가치체계에 대한 연속적이고 안정된 자기의식으로 보았다. 한편 Sarup(1996)은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유동적, 다원적, 특수적, 복수적으로 해석하여 주체가 사회적 타자와 관계에 의해 변화되며 재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국 정체성 형성은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 규정 과정이자 타자규정 과정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다.

Giddens(1991/1995: 143)는 “후기 현대의 자아는 수많은 선택에 열려 있다. 이것은 곧 복수의 자아정체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표현했다. 곧 전통문화에서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현대에 이르러 비로소 개인이 분리되어 주목을 받고, 가치를 부여받아 왔으며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 잠재력의 개발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Giddens에 따르면 “자기이해는 그저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일관되고 가치 있는 정체감을 구축/재구축한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목표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며 정체성 형성의 역동성을 강조했다(Giddens, 1991/1995).

Hall(1992)은 현대 정체성을 탈중심화로 해석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홀의 탈중심화 현상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나아가 전통이라는 환경과 제도에서 나온 이민자들이 이주 과정과 정착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황과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고 선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정체성이란 다양한 삶의 환경 변화를 마주하며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켜가며 성장하는 개인의 주체적인 삶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영순, 2020). 또한 주체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임과 동시에 주체를 특정한 사회적 기능으로 규정하는 방식이기도 하다(성지영, 2018). 정체성은 우리를 둘러싼 문화적 체계들 속에서 재현되거나 다뤄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형되는 것으로(Hall, 1992) 경계지대를 넘은 장소의 변화, 사회문화적 경계의 변화가 정체성의 변화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이은혜, 2018).

2.2. 정체성 협상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장배경을 가진 사람이 만나 상호작용을 할 때 개인이 지닌 정체성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협상의 동기로 작용하게 되며 반대로 협상의 핵심요소인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발생하기도 한다(최희, 김영순, 2020). 개인의 목표를 향해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갈등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교차점이 정체성 협상이다(Swann, 1987, 최희, 김영순, 2020: 7 재인용)

복합적이고 혼종적인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은 자신의 일상적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재개념화하는 정체성 협상을 한다(김영순, 2020). 정체성 협상은 개인의 변화이며, 정체성 협상은 개인이 처한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협상은 주로 이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인간, 사회적 구조, 환경을 조정하는 과정이 협상이다.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주민의 경우 사회문화와 제도가 전혀 다른 나라에 정주하여 살게 될 때 경험하는 문화변용⁶⁾은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이주민은 새로운 이주사회의 관습, 언어, 식습관, 인간 관계, 제도와 규범 등 자신의 정체성과 충돌하는 수많은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상호작용하는 개인 및 집단의 영역에서 갈등을 직면할 때 자신의 가치관을 수정하거나 고수하기, 주류 집단의 준거를 준수하거나 거부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한다. 이처럼 이주 사회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해결해가는 적극적 대응 방식을 정체성 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주민들의 정체성 협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체성 협상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6) 문화변용은 두 문화가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화변용(acculturation)은 문화접촉이 발생하는 현상과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변화를 이해하는 핵심주제가 된다(김영순, 2020).

본 연구는 다양한 이주민 집단의 정체성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정체성 협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도입국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정체성 협상의 구체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이주민 집단과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 경험과 삶의 맥락이 동일할 수는 없으나 이주 경험, 청소년기에 경험한 이주,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과 새로운 가족 관계 등 유사한 경험을 한 대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정체성과 정체성 협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협상에 대해서는 초국적 유대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영순과 임지혜 외(2013)는 결혼이주여성을 일방적 동화의 대상으로 본 시각을 비판하며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맺는 방식, 이주 배경을 자원화하는 실천에 관심을 두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과 정주국 사이에서 한계를 직면하지만 이주 배경을 초국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스스로 주체화하는 존재로 나타났다. 초국적 유대관계를 맺고 상호 작용하며 자신의 이해를 실천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정체성을 협상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연구한 이희영(2010)은 한국사회의 일반화된 타자와 상호작용하며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사회·정치적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희영은 인정투쟁의 과정을 개인의 정체성 구성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맞서 자기존중과 사회적 가치를 확보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거리두기는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판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 경험과 정체성 변화를 연구한 이은혜(2018)는 탈북청소년들이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과 일방적 동화 추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고정된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삶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고유한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학습 경험을 통한 정체성을 탐구한 조진경 (2016)도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디아스포라적 특성을 가지고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존재로 보고 이 과정을 정체성 협상으로 해석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모국 문화와 모국어 유지, 새로운 가족 환경에서의 어려움과 소속 집단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조혜영, 2012).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순응과 대응, 갈등과 협상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이주배경 귀화청소년들은 국적을 취득하여 스스로 자신을 한국인이라 여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외국인으로 대하는 갈등과 포함과 배제의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신을 이방인으로 대하는 사회에 대한 무시와 회피, 의도적인 감춤과 드러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도 하고 타자화를 회피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을 나타내기도 한다(송원일, 유진 이, 2020).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출생과 성장배경, 지지체계, 가용자원 등에 따라 자아인식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이민경, 2016). 이주배경청소년, 혹은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집단적 인식과 구분은 이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담론이 될 수도 있다. 이주의 경험은 하나로 특징지을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과 사회적 관계와 제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가는 개별적 주체로서 이해해야 한다. 성인 이주민들의 경험에서 정체성 협상을 도출해 낸 것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들 또한 이주의 과정, 한국 정착과 적응 과정에서 수많은 상황을 대할 때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환경과 협상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 이전 탈북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해석은 복지의 수혜자, 적응과 동화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남한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또한 북한과 제3국에서의 청소년기와 탈북 동기와 성장과정 경험의 변화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중요 요소로 취급되지 못하였다. 그러

나 2010년 이후에 이루어진 탈북청소년 정체성 연구는 이전의 결핍 서사에서 벗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탈북청소년은 영토와 사회문화적 경계를 경험하며 혼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부적응의 단서가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능성으로 이해하며(조정아, 2014)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탈남을 결행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정체성 교섭의 주체로 인식하였다(오원환, 2011). 또한 정체성 협상은 구체적인 삶의 경계와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기에는 능동적 학습을 통해 삶을 성찰적으로 해석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해가기도 한다(이부미, 2012; 이은혜, 2018). 정체성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여 입시 경쟁, 복지 혜택에 대한 선택, 세계화 속에서의 또 다른 이주 결행 등 끊임없이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지속하는 유동적 정체성을 보이기도 한다(성지영, 2018).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체성과 정체성 협상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이주민들은 이주국에서 소수자로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 자기와 세상에 대한 경계에서 자아에 대해 인식하며 갈등하게 된다. 둘째, 갈등 직면 상황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로 발전하고 개인은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이는 같은 집단, 유형이라도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문제해결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 타협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자기 이해와 자아실현을 실천한다. 여기에는 순응, 적응, 회피, 직면, 타협 등 다양한 협상 기술이 사용되며, 자아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어나가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인식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상호 조율하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곧 현실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것을 정체성 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정희, 김영순, 2018).

본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온 맥락 속에 들어가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

녀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며 성장하고 있었는지를 정체성 협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영토 경계를 경험하고 사회문화와 법과 제도적 경계를 경험하였다.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이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에 대한 인식,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인식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며,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수정하며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상 이주배경 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의 정체성 변화와 협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체성 협상이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의 변화와 갈등 조정,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둘러싼 맥락적 환경 즉, 개인과 가족,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 갈등 조정, 선택과 양보 등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갈등 극복을 위한 실천행위를 정체성 협상으로 이해하여 경험에 대한 탐색을 심화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개요

이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을 탐구한 연구로 비구조화된 면접법을 활용한 질적연구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질적연구는 현실의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질적연구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삶에 대해 알아가며 연구참여자를 둘러싼 현상을 연구자의 세계관으로 설명하고 재해석하는 학문활동이다(김영순 외, 2018).

본 연구는 인천시에 소재한 A중학교에서 2년간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며 만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어반에서 만난 한 학생은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유독 한국어 습득을 어려워했고, 학교생활도 늘 혼자 하며 힘들어했다. 중국에 다시 가고 싶어했던 그 학생은 겨울방학을 이용해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에 남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더디지만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것으로 이해했던 연구자는 무엇이 이 학생으로 하여금 재이주를 결정하게 했는지 학생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탈북학생,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들은 부적응, 복지의 수혜자, 차별의 대상, 특별한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다(이부미, 2012; 강구섭, 2015; 양영자, 2016). 연구자 또한 막연하게나마 북한이탈주민을 동일한 시각으로 이해했던 경향이 있었기에 학교에서 만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동정의 시각으로 대했던 미숙함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수록 또래 관계에서 겪는 갈등, 진로에 대한 고민, 부모님과의 갈등 등 이들이 경험하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며 갈등을 조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는 김영순 외(2018) 저서 「질적연구의 즐거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존의 지식체계나 학문에서 ‘그렇

것’으로 여겨왔던 것과 가능성에 대한 도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그 중에서도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일반화된 타자들이 믿고 있는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질적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사회 변혁이나 모순의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연구자 자신이 편견과 통념에서 벗어나 주관성 있는 행동과 사회성을 실천하는 데 있다(김영순 외, 2018). 본 연구는 먼저는 연구자 개인의 편견과 통념을 버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자 하는 실천의 시작이기도 하며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삶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는 학문수행의 사회적 실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인 삶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 방법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이희영, 2010). 단순한 이주 현황과 생활 적응의 실태에 대한 양적 기술을 넘어 역동적인 삶의 체험을 이해의 지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론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질적연구는 연구대상을 둘러싼 삶의 맥락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경험의 가치를 탐구하는 작업이므로 경험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관찰과 기록이 중요하다. 김기화(2019)는 질적연구 수행이 필요한 경우를 Padgett(1998/2001)의 이론을 들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탐구적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둘째,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부터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 셋째,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경우 넷째, 프로그램 개입이라는 블랙박스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 경험과 정체성 협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탈북한 부모에 의해 중국에서 출생한 이후 성장과 한국으로 입국, 새로운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부모의 탈북 신분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

터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이주하게 되어 개인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변화를 겪는다. 이와같이 인간의 경험에 대한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를 필요로 할 때 질적연구를 수행한다(Creswell, 2007).

둘째, 질적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할 때 유용하다(김기화, 2018). 지금까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탈북청소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행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연구에서도 정체성 협상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이주 전 중국에서, 이주 과정 중에 무엇을 경험하였으며, 그들의 경험은 이주 후 삶과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이해가 미비한 실정에서 실태조사와 문헌연구 등 양적화된 접근방법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는 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적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있어 이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실태조사, 교육환경, 주양육자의 양육과 교육 경험, 정책과 지원 서비스 현황 및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이주 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하는 노력과 주체적인 경험에 대해 간과하며 여전히 복지 수혜자, 부적응자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켜 왔다. 따라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경험한 이주와 정체성 협상 경험이 어떠한 맥락에서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질적연구방법으로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다.

질적연구의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이며 그들의 정체성 협상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탈북 배경을 가지고 중국에서의 출생 혹은 성장

한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현재 정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만 14세 이상,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보호자 동의를 얻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정하였다. 정규학교의 재학생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정규학교가 대안학교보다 사회적 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과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심층 면담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자세하게 구술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이다. 연구참여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한국어 사용에 전혀 어려움이 없이 능숙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한국어 표현이 서툰 연구참여자 한 명은 다른 연구참여자(친구)가 통역에 참여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8은 학력 기준으로는 초등학생이지만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 되어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⁷⁾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총 8명이며 초등학생 1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으로 모두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중이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두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한국 입국 전 중국 거주 기간은 1년 미만에서 13년, 한국 거주 기간은 1년 이상에서 17년 이하까지 폭넓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입국 시기는 1살 미만 1명, 4~7세 이하 4명, 12세~13세 이하

7)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한국 학교 편입 과정에 있어 나이보다는 한국어 수준을 기준으로 학년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참여자 4와 8은 초등학교 편입 당시 자기 나이보다 각각 1살, 2살 낮은 학년에 배정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참여자 8은 초등학생이지만 만14세 이상이 되어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3명이며 입국 형태는 동반입국 5명, 초청입국 3명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1은 만 1세 이전에 부모님과 함께 입국하여 출생국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연구참여자 2 역시 어린 나이에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주에 관한 내용은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다.⁸⁾ 연구참여자 5와 6은 7세 이후에 이주를 경험하여 이주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하였으며 하나원 입소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2, 5, 6, 7은 엄마와 함께 동반입국을 하였는데 2와 5는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 나라를 거쳐 입국하였다. 연구참여자 2, 4, 8은 엄마(부모)의 선입국 후에 초청으로 입국하였는데 이 기간 사이에 엄마와 오랜 시간 분리되어 지냈다.

동거가족 유형은 부모와 함께 거주 4명, 모와 거주 3명, 부와 거주 1명이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유형 중 2명은 재혼가정으로 중국인(한족) 새아버지를 두었다.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이나 한국 입국 후 이혼하여 부자가족을 이룬 일부 사례(연구참여자 2)도 있다. 연구참여자 2는 부모의 별거 기간 중 부자가정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1은 어렸을 적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5살 이후부터 엄마와 동생과 지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며, 연구참여자 5, 6 역시 아빠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엄마와만 지내고 있었다. 부모 모두 동거하는 참여자는 3, 4, 6, 8로 모두 중국인 아버지를 두고 있다.

연구참여자 3과 4는 비교적 가족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연구참여자 4와 6은 부모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이 있었으며 주로 가족과 동떨어져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이중 연구참여자 4는 나이 차이가 10살 나는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의 재혼 후 동생이 태어났으며, 어린 동생에게 엄마의 사랑과 돌봄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모의 직업 유형은 전문직(어머니) 1명, 건설업 관리자(아버지) 1

8) 연구참여자 1과 2는 3세 전에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이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를 통해 탈북과 중국에서의 삶,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탈북 스토리를 이해하고, 탈북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연구참여자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명, 자영업(부모), 육아(어머니) 1명이고 대부분 일용직이나 식당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4명이다.

연구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결과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하나원 퇴소 이후 탈북민 밀집지역에 거주하게 되고, 초등학교 편입을 탈북학생교육 정책추진학교에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6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중이었는데 연구참여자 6은 입국 당시 연령이 14세가 되어 하나원 생활을 거친 후 바로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연구참여자 2는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간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4명은 같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거나(연구참여자 7) 졸업하였고(연구참여자 1, 4, 5) 연구참여자 3은 초등학교 졸업 후 2년 동안(2018~2019) 중국 국제중학교에 유학 생활을 한 후 한 학년을 낮춰 편입하여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연구참여자 3과 8은 각각 입국 후 실제 나이와 다른 학년에 편입되어 1-2세 적은 학년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 <표 III-1>에 제시하였다.

<표 III-1>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성 별	출생연도/ 현재나이	입국 연도	입국 나이	현재 학년	입국형태	동거가족
1	남	2004 /17	2005	2세	고1	동반입국	어머니, 동생(10세)
2	여	2004 /17	2007	3세	고1	동반입국	아버지(조선족)
3	여	2004 /17	2008	4세	중3	초청입국	아버지(조선족), 어머니, 동생(9)
4	남	2003 /18	2010	8세	고1	초청입국	새아버지(한족), 어머니, 동생(7세)

5	여	2004 /17	2011	7세	고1	동반입국	어머니, 오빠, 동생(8세)
6	여	2005 /16	2017	13세	중3	동반입국	새아버지(한족), 어머니
7	여	2007 /14	2019	13세	중1	동반입국	어머니, 동생(8세)
8	여	2007 /14	2018	12세	초5	초청입국	아버지(한족), 어머니, 동생(1세) ⁹⁾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되었고, 그 외에 전화통화, 연구자가 작성한 현장일지와 메모 등이 추가적으로 활용되었다. 심층면담은 연구를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이다(유기웅 외, 2012). 또한 다양한 사회현상과 인간의 행위를 총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 개인 경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김영순 외, 2018).

연구자가 자료수집을 위해 처음 연구 동의를 요청한 곳은 I시의 새터민지원센터이다. 전화를 통해 기관장을 만나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방문을 하고자 했으나 당시 코로나19 펜데믹이 극심한 상황이었어서(2020년 6월경) 학생들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센터에서도 외부인 방문을 어려워하는 상황이었다. 센터장은 개인정보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구 참여가 어려운 점을 설명하였고 연구자도 이에 동의해 연구현장 방문을 연기하였다. 7월 중순경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어 연구참여자 섭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9)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보다 적게는 6살, 많게는 13살 어린 동생이 있는 경우가 있다. 가족과 관련된 면담 내용 중 나이 어린 동생에 대한 부담감과 미움 등에 대한 감정이 표현되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을 둔 가족 관계의 특성을 보여주고자 동생의 연령만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연구현장으로 섭외한 곳은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A중학교였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 본 연구 목적과 진행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고, 탈북학생 학습지원 담당자에게서 연구참여자 정보(학년, 반)를 얻은 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도 코로나 영향으로 학생들이 3주 단위로 격주 등교를 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중 1명의 재학생을 만날 수 있었고 후에 탈북학생 학습지원 담당 교사¹⁰⁾를 통해 졸업생 1명을 소개받아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개인적으로 알게 된 학생 1명과 연구자가 가르쳤던 한국어 학급 졸업생, 탈북학생 전담 교육을 맡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소개해 준 3명의 연구참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자료수집 막바지인 9월에 연구참여자 7의 친구를 소개받아 추가로 면접을 진행하여 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 중에는 녹음과 함께 연구참여자의 표정, 한숨, 고민, 핵심키워드 등을 기록하여 대화에 담긴 의미를 고려하여 전사하는 데 활용하였다. 면접 내용은 면접이 끝난 후 1-2일 안에 바로 전사하였으며 몇 차례의 전사록을 읽으면서 자료를 범주화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2차 면담에서 다루거나 면접이 어려운 참여자의 경우 전화 통화를 실시하여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더 이상 추가적인 정보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자료의 포화상태가 이르렀을 때 연구참여자 모집을 중단하였다.

자료 분석은 전사한 자료, 연구자가 기록했던 메모, 문헌 자료에 나타난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내용을 파악하고 정체성 협상에 관한 이슈를 찾고, 해석하여 의미를 도출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A4 용지 약 102매 분량의 전사록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있는 진술에 밑줄을 그어 표시한 후 중복된 의미별로 묶은 후 어구와 단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중심의미별로 범주화하고 각 영역별로

10) 연구자가 근무했던 A중학교는 한국어학급과 어울림교실 두 개 반 운영을 통해 탈북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주요 교과목 학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 학교에서 2년 동안 한국어학급에서 한국어 강사로 근무하며 탈북학생과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분류하여 중심의미와 세부의미를 추출하였다.

자료 분석 후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을 다시 만나 연구자가 면담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임의로 생략하거나 추가한 사항은 없는지, 연구참여자가 전달한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였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료 분석과 절차 과정에 대해 질적연구 방법론 수업을 통해 동료 간 협의와 질적연구 전문가의 지도를 거쳐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I시 소재 탈북학생교육 정책학교에서 탈북학생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 A중학교의 어울림교실 담당 교사와 사전 면담을 가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았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 개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3개월이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예비 면접 시 앞으로 진행될 심층면접 때 다룰 질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었으며 연구참여자로부터 면접질문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질적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이 순환을 이루게 되는데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화와 추가 면담을 통해 자료를 보완해 나갔다. 연구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면담 진행과 자료수집에 핵심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면접을 실시하기 전 연구참여자를 소개해 준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다과를 먹으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후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참여자 8명 모두 미성년자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와 일 대 일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연구참여자가 친한 친구일 경우에는 두 명이 짝을 이뤄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경우 입국 시기와 입국 당시 나이가 비슷하여 서로의 경험을 듣고 묻는 상호작용을 통해 더 풍부한 내용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질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엄격한 연구 윤리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연구대상이 되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뿐 아니라 이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200519-2A이다.¹¹⁾

연구자는 심층면접 전에 연구참여에 관한 자발적 의사를 다시 확인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 목적과 절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 8명 중 5명은 한국어 사용과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전혀 없이 모어처럼 사용하였기에 연구설명서와 동의서를 직접 읽게 하였다. 혹시, 모르는 단어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고 질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3명은 한국 입국한 지 2년 미만이어서 글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설명서를 읽어주며 단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가 연구의 목적과 진행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연구 참여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연구자는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면접 내용 보호를 위해 연구참여자 실명 대신 연구참여자 번호로 표시할 것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11) 연구윤리의 심의 과정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심의의뢰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동의 철회 및 방법을 보완할 것과 동의서와 설명문을 쉬운 용어로 사용하여 수정할 것, 질문 내용에 심리적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하여 면담 내용을 5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것,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기술할 것을 제시하였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서에서 제시한 수정사항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였고 2020년 7월 2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고지하였다.

면접 질문에 대답하기 힘든 경우나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 참여를 중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고 면접 내용을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8명 모두 미성년자에 해당하였는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권리보호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노력하였다.

IRB 준비과정에서 연구설명서와 동의서를 보호자와 학생용으로 각각 준비하였으며, 한국어가 서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쉬운 용어와 눈높이에 맞춘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보호자에게 연구설명서를 전달하거나 전화통화를 거쳐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이후 보호자의 서면 동의와 자녀의 자발적 참여를 문서화 하였다. 자녀의 연구 참여를 동의한 보호자에게는 자녀에게 질문할 내용들을 서면 및 사진파일(휴대폰 메신저 사용)로 전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모바일 교환권 등을 준비하여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형태로 답례하였다.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자료수집의 핵심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더욱 윤리에 민감해야 한다(김영순 외 2018). 본 연구는 가족, 탈북, 정체성이란 사회적이고 민감한 주제로 참여자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자 역시 이에 민감한 자세로 임하고자 노력했다.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연구참여자 섭외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면접 질문에 대해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문가와 동료집단으로부터 거듭된 조언을 받았다. 실제로 개별심층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참여자는 모국에서 힘들었던 가족 경험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의 힘든 관계를 다시 떠올릴 때 침묵하거나 한숨을 쉬는 등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탈북 배경과 모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론 수업과 사회복지 전공 수업에서 배운 면접 기술을 상기하며 수용, 공감, 경청의 자세로 참여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면접에 임하였다.

개별심층 면접이 끝난 후 한 연구참여자는 “이렇게 털어놓을 기회가 없어서 되게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약간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한 번 (내) 얘기해서 조회수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었던 말이에요.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면 약간 아 이렇구나 괜히 불쌍하게 볼까봐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여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정적 정화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에게 면접 소감에 대해 묻자 “너무 좋아요. 그동안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는데 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한테도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도 같이 하자고 했어요.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한국 와서 내 얘기를 중국 친구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본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하며 한국에 온 이후 자신에 대해 말해본 적이 없어 답답했던 마음을 해소한 것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IV. 연구결과

1.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 경험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 경험은 이주 시기에 따른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을 이주 시기에 따른 것을 근거로 하여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별로 이주를 시작한 연령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과 관계 없이 이주의 전 과정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출생국인 중국에서의 성장과 탈북 여정이 시작되는 시기까지를 이주 전, 한국에 도착하여 하나원 생활을 시작으로 관계를 맺으며 적응하는 이주 초기, 학교 생활을 하며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을 정착 단계로 구분하였다. 다음 <표 IV-1>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 경험을 이주 시기에 따라 범주화한 것이다.

<표 IV-1>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 경험

영역	중심 의미	세부 의미
이주 전	중국에서의 회색빛 삶	엄마의 부재
		탈북을 마주함
이주 초기	낯선 한국에서 관계맺기	하나원에서 느낀 나뉘
		제일 어려운 숙제, 친구 사귀기
정착기	넘어야 할 장벽	마음껏 말하고 싶어
		상처투성이 가족과 함께

1.1. 이주 전: 중국에서의 회색빛 삶

1.1.1. 엄마의 부재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중국에서 엄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갖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낸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돈을 벌기 위해 장기간 출타하여 집을 비우거나 자녀를 조부모나 지인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먼저 이주하여 정착을 위해 어린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다. 엄마와 분리될 당시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엄마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성장과 함께 엄마의 빈자리를 깨닫게 되면서 슬픔과 그리움을 느낀다.

엄마와의 분리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엄마의 부재를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어색함과 당혹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동반입국과 달리 부모의 초청으로 단독 혹은, 지인에게 맡겨져 입국하는 초청입국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 및 가족의 애착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동반 입국 여부가 청소년의 행복 만족도에 주요한 차이를 가져온다(김유연, 손명아 외, 2018).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영아기 시절부터 부모(엄마)와 떨어져 지낸 경우는 3명(연구참여자 3, 4, 6)이었는데 이들의 경험을 통해 ‘엄마의 부재’가 성장 과정과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 형성, 자기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중국에 있을 때 저를 케어해 주셨던 분이 저 사람이 엄마야 하면 제가 너무 좋아서 계속 따라다니고 그랬대요. 엄마 가끔 오셨거든요. 한두 번? 엄마에 대한 갈망? 그런 것도 있었고...(연구참여자 3)

엄마의 부재는 ‘엄마에 대한 갈망’이라는 심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주양육자의 양육방식에 대한 차이로 인해 자녀의 성격과 행동방식에도 영향을 미

친다. 중국에서 자라는 동안 연구참여자 3의 보호자는 타인을 경계하고, 강한 성격으로 양육하였는데 한국에 온 후 어린 자녀의 차가운 태도에 대해 부모는 당황하였다. 또한 자녀와 처음으로 함께 살게 된 엄마는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교육을 시킴으로써 자녀와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제가 친척도 없으니까 저를 강인하게 키우고 싶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너한테 뭐라 하면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막 화내고 거짓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맨처음 왔을 때 엄마가 되게 당황스러웠대요. 애기가 너무 싸가지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첫째이다보니 엄마도 잘 모르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교육시키는 거 보고 엄마가 교육을 해보겠다 생각하셨어요. 한국어도 되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저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잘 따라 못한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3)

엄마의 부재는 엄마의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엄마와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사는 과정에서도 거리감을 만들어낸다. 특히 엄마가 먼저 한국으로 이주한 후 오랜 시간 동안 분리되어 지낸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는 ‘엄마는 원래 없었다’고 여길만큼 엄마는 어색하고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 연구참여자 4와 6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조부모님께 맡겨져 자라면서 엄마를 만났던 기억을 거의 갖지 못하였다. 엄마는 명절에나 가끔 보는 사람이었으며 엄마의 이름을 모르는 게 이상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을 만큼 엄마의 존재는 희미했다.

“중국에 있을 때 엄마 기억 전혀 없어요. 아예 안 살았어요. 잠깐만 놀러왔지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국에 데리러 가고.” (연구참여자 4)

“나는 몰랐어요. 엄마 북한 사람인 거 올 때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엄

마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 이름도 몰랐어요. 열세 살? 그때부터 엄마 이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아동기 주양육자와의 애착은 이후 성장하는 과정에 심리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자존감, 긍정적 정서, 자신감, 사회적 능력 등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엄마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혹은 한국으로 먼저 이주하여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며 엄마의 얼굴과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로 지내며 성장한다. 엄마와의 애착형성이 되지 않은 채 엄마와 오랫동안 분리되어 지내온 자녀들은 이주 이후 엄마와 함께 보내는 과정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해하며, 엄마의 양육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1.1.2. 탈북을 마주함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엄마의 탈북 이야기를 은연중에 들어 알게 된 경우가 많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직접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린 시절에는 엄마의 말투가 조금 다르다는 것과 가족들이 엄마를 대하는 게 다르다는 것, 자주 이사를 다니고, 엄마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면서 엄마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는 경우이다. 한국에 온 자녀들은 유치원과 학교생활을 거치며 엄마의 출신과 엄마의 탈북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자신을 둘러싼 낯선 환경을 마주하게 된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냥 어디를 가자고 했는데 이모집에 도착하니깐 있으래요. 새벽에 엄마는 먼저 가고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저희 데리러 오고 그때부터 모험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엄마가 나) 버리고 가는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따라왔어요.” (연구참여자 4)

“(엄마가 북한에서 오셨다는 거 알고 있었어?) 못 들어봤어요. 그런 데는 말 하면 안 돼요. 잡혀가요. 잘못 말하면 마을에서 소문나서 북한군이 나와서 데려가요. 한국 와서 엄마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뛰라고 하고 데려오셨어?) 그냥 엄마가 일하는 데 가자. 그래서 엄마를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다른 길로 가시더라고요. 몰랐어요. 되게 오래 걸렸던 거 같은데..... 산 넘어야 하니까...” (참여자 5)

연구참여자 4와 5는 비교적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7살 때 이주를 시작하여 1년 후 한국에 입국했다. 여행으로 혹은 엄마의 일터에 놀러가는 것으로 알았던 시작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포의 시간을 몸소 경험하는 험난한 이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더 어린 나이에 이주한 연구참여자 1, 2, 3의 경우에는 이주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없고 부모를 통해 듣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초등 고학년 때 입국한 연구참여자(6, 7, 8)들은 왜 갑작스럽게 고향을 떠나야 하는지를 어렵풋하게 짐작하며 한국에 오게 되었다.

“(엄마한테 왜 한국에 있냐고 물어 봤어?) 아니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원래 북한 사람이잖아요. 북한에는..... 갈 수 없죠. 엄마도 한국에 오고 싶어해서.....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7)

“엄마는 돈이 없어서 중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왔어요. 음..... 엄마가 중국에서 너무 힘들어요. 할아버지 술을 많이 마셔요.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욕도 하고 그런거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연구참여자 8)

고향에서 본 엄마의 생활은 고단하고 힘겨웠으며 북송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도 약자로 살아갔다. 엄마의 탈북 배경은 자연스럽게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평범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게 하고 낯선 나라로의 갑작스런 이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중도입국청소년은 부모의 선택으로 결정된 이주라는 점은 공통적이거나 이주의 근본적인 목적이 ‘엄마의 안전’을

위한 것에서부터 이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2. 낯선 한국에서 관계맺기

1.2.1. 하나원에서 느낀 나뉘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한국 입국 초기 하나원 재원 적응교육 3개월간 심리적응치료, 기초학습 및 초기적응 교육을 받는다. 삼죽초등학교(유·초등학생)와 하나둘학교(중·고등학생)에 각각 연령별로 입학하여 지내게 되는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동반 입국한 4명은 하나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는데 한국어 교사와 또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인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사회경험을 하였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에 의거하여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즉 보호대상자가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이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입소자격이 주어지며 이 또한 북한이탈주민인 부모 호은 부, 모와 동반입국 시에만 가능하다.

하나원에는 북한 출생자와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자녀세대들이 함께 지내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하나원에서 지낸 시간을 기억하며 ‘북한애들’, ‘중국애들’로 표현하여 표면상으로는 같은 ‘탈북’ 아이들이지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에 따라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끼기도 하고, 나와는 다른 애들로 구분 짓기도 했다.

“한 명은 북한 사람이야. 북한 아이야. 개도 열세 살, 말 못하니까 같이 놀았어요. 괜찮았어요.” (연구참여자 6)

“나는 맨날 방 안에 있었어요. 친구도 없잖아요. 아는 언니 한 명 있었는데 그 언니는 한국말 빨리 배우고 싶어서 맨날 북한 애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중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 공부할 때나 이야기할 때 생각이 많이 달라요. 북한에서 온 애들 중국말 조금 하긴 하는데 애들이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7)

중국애들과 북한애들로 구분짓는 것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뿐만 아니라 북한 출생 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북한 출생 아이들이 중국 출생 아이들을 ‘중국아이’ 라고 부르며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짓는 것과 반대로 중국 출생 아이들은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북한 아이들과 선을 그어 비교우위를 점하는 반대 현상을 보인다(신현옥, 2011). 하나원에서부터 출생을 기준으로 스스로 구분짓는 나뉠현상은 하나원 시설 지원의 정당성 확보(북한이탈주민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와 퇴소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인식(북한출신이 중국출신보다 나쁘게 여겨지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현옥(2011)은 하나원에서 시작되는 출생 기준의 나뉠을 정체성과 연결하여 이해하였다.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를 인식하는 것과 타인이 ‘나를 누구라 여기는가’ 에 따라 정체성이 형성되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을 출생지에 따라 구분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첫 느낌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긍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부정적 반응을 형성하게도 한다. 연구참여자 5는 하나원에서 한국어 시간에 중국말을 사용하면 선생님에게 심한 꾸중을 들어 그 이후로 절대 중국어로 말하지 않기로 다짐하였다. 그때부터 중국어 사용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현재는 중국어를 다 잊어서 아쉬움이 크다고 한다. 반면에 연구참여자 6은 선생님들과 정이 많이 들 정도로 하나원 생활을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나원 유치원 선생님이 중국말 하지 말라고 혼난다고. (한국말 빨리 배우라고 그러신거야?) 제 눈에는 그냥 하지 말라고 들렸어요. 그냥 말하면 머리 때려버리고 중국말 하지마 이렇게. 그때 짜증이 나서 ‘내가 중국말 하나 봐라’. 하면 때리니까. 잘못하다 중국말 하면 또 맞고 그럼 억... 머리 가리고.....” (연구참여자 5)

“하나원 있을 때 편안함 같은 거 있었어요. 그때는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좀 힘들었어요. 나 혼자 여기 오니까. 저는 국정원에서 (하나원을 뜻하는 말이었음)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랑 잘 지냈어요. 선생님한테 선물도 주고 왔어요. 잘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나 울었어요. 엄마 나 나가고 싶지 않아. 우리 다 울었어요. (퇴소할 때마다). 밀에 반(초등반) 애들 다 울었어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5와 6의 진술을 통해 한국에 첫발을 내딛는 하나원에서 만난 교사, 또래와의 관계에 따라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서술과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첫 발을 내딛으며 한국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 곳 하나원에서의 상이한 경험은 한국에 대한 인식, 자신의 출생 신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인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것에 대한 타인의 인식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도 하는 것이다. 하나원에서의 경험은 하나원 퇴소 이후 편입하는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는 것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 자신감 등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1.2.2. 제일 어려운 숙제, 친구 사귀기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하나원 퇴소 후 바로 거주지에 있는 학교로 편입되어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한다. 연령에 따라 학년이 정해지지만 보통은 한국어 실력에 따라 혹은 본국에서의 교육 경험과 이주 과정에 따른 학습 공백기 등을 고려하여 학년이 배치된다. 하루 종일 함께 지

내는 학교에서 이들은 낯선 환경에서 학습 분위기를 익히고, 한국어로 교과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혼자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입국 연령은 한국어 발달과 직결되어 있는데 어린 시절 이주한 참여자들은 언어의 어려움 없이 학교에 적응하지만 그 외의 참여자들은 입학 초기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 맺기와 학습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또래 맺기는 언어문제 때문에 동일한 흐름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어색함 없이 시작한 경우, 한국 친구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보낸 경우, 이방인으로 대하는 한국 친구들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경우, 언어 장벽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보내며 이겨내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기가 나타난다.

4세 이전에 한국에 온 연구참여자들은 유치원부터,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시기부터 한국에서 생활했기에 언어적 특이성이 나타나지 않기에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을 친구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처음부터 한국인으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말하고, 학습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기에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나 갈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다같이 친하게 놀았어요. (탈북학생 이런 얘기 때문에 힘든 적 있었어?)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애들이 다 이해해주고. 그런 건 중학교 와서도 별로 없었어요. 탈북학생 그런 거에 대한 별로 생각 없어요.” (연구참여자 1)

“애들이랑 별로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편한 점 그런 건 없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정도로요.” (연구참여자 2)

유아기에 한국에 이주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사회화 과정을 한국 교육기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부모에게서 배운 북한식 말투는 유치원 생활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친구 사귀기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 이는 이른 나이에 이주한 것이

한국 문화에 빨리,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입국 시기가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중국에서 온 애’라는 것이 드러나 왕따와 놀림을 당한 것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학교교육정책의 효과라고 할 수도 있다. 위의 연구참여자들은 탈북학생교육 정책중심학교에 다녔는데 학교교육이 탈북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타인의 문화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습득되지 않는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일상을 통해 나와 타인의 다양성과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하다 생각하기엔 탈북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어 애도 탈북민이었어? 그냥 이런 느낌? 선생님들이 수업을 많이 해서 그런 인식도 사라진 것도 있고요.....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 (연구참여자 2)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북한 문화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북한은 나쁜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심어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익숙하게 하는 거. 근데 중학교 와서는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예 다문화에 대한 활동도 아예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3)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유급으로 인한 동생들과의 생활,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한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양혜린 외, 2017). 초등학교 입학 직전 입국하는 경우 이주와 함께 새로운 교육환경을 접한다. 어눌한 한국어 사용으로 인해 한국인이 아닌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이는 친구들의 관심 혹은 장난과 괴롭힘으로 나타났다.

“그냥 무시했어요. 무시 안 하면 계속 하니까. 무시가 답이었어요. (무시는 어떻게 하는거야?) 들어도 안 들은 척. 저는 안 듣고 있어요. 멍때렸

어요. 물어봐도 똑같은 애가 또 물어보니까 짜증나고 그냥 저는 안 말해줘요. 막 나한테 빨갱이라고도 하고.. 저는 그게 4년 동안 갔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대답 안 해줬어요.” (연구참여자 4)

“그냥 넘어와서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 건데.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부정적이에요. 왜 굳이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지? 오~ 중국에서 살았어? 오~ 중국말 좀 해봐. 니 시팔로마. 야 이거 중국말 맞지?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했어?) 저는 다 말해줬어요. 근데 그게 며칠 안 가요 신기해하는 게. 좀 흥미를 잃으면 안 물어보니까.” (연구참여자 5)

특히 연구참여자 4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인근 초등학교 세 곳을 돌며 전학을 자주 다닌 것 때문에 선후배 사이가 얽혀 교우 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자신의 복잡한 사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짐으로써 자신 본래의 모습을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켰다.

“잘 다니는 학교를 놔두고...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데 전학을 간대요. 옆 학교로. 예전 학교가 다 근처니까 후배 중에서 같은 학교 다녔던 애들이 어? 너 개 아니야? 우리 학교 다녔는데? 난 말할 수도 없고... 힘들어 죽는 거예요. (중략) 아는 척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여기랑도 저기랑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여기 애들 안 만나고 친한 애들이랑 ○○도시까지 가요. 거기 가면 있는 그대로 03년생으로 여겨주니까요. 18살로 살 수 있는 거죠.” (연구참여자 4)

두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언어와 동급생과의 나이 차이로 인해 친구 맺기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이기영, 2002). 그러나 이들이 보인 태도를 일방적인 회피와 소극적 대응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친구들의 관심에 대해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무례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무시로,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한 경우에는 대답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충족시켜주며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연구참여자들 스스로가 말하듯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답해줘요’, ‘무시하는 게 답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물어보니까’ 라고 한 말에서 자신만의 전략으로 친구 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을 마치는 청소년 시기에 입국하여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언어 문제로 인해 친구들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고립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낸다. 친구가 없는 상황에 대해 ‘아무렇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였으나 면담 중에 ‘심심했어요’, ‘말만 통하면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중국말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라는 말 속에서 친구와의 사귀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옆에 친구들도 없었어요. 혼자..... 학교 가니까 친구 없고 말도 할 수 없어. 아휴 너무 속상하니까..... 진짜 답답해요 (말을) 못하니까.” (연구참여자 6)

“저는 맨날 주말에 (중국) 친구랑만 놀아요. 학교 처음 왔을 때 아 진짜...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참... 말도 못하고 음..... 제일 친했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전학 가고 혼자서 지냈어요... 다른 애들이랑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그게 편해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8은 자신이 한국어를 잘못하기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것과 심심하지만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실수할까봐 긴장상태로 지내는 것을 힘들어 했고, 자신보다 두 살이나 어린 동생들과 지내는 것에 자존심 상해하며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 4가 동급생과의 나이 차이로 인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맺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린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다(김명선, 2015; 양혜린, 고윤정 외, 2017; 김성경, 2018).

“심심했어요. 심심한데 한국 애들이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 친구한테는?) 네! 있어요. 그냥 앉아서 할 말이 많아요. (한국 친구가 중국어를 잘한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말이 어려워. 이야기할 때 너무 긴장해요. 학교에서 친구랑..... 응..... 이야기 할 수 없어서 너무 심심해요. 학교 친구들 너무 작아서(어려서) 친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어려워. 동생들하고 지내는 거 안 좋아요.” (연구참여자 8)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에서 한국 친구들의 따돌림과 무시보다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서 오는 어려움이 발견된다. 언어적 어려움은 입국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어적 두려움으로 인한 정서적 긴장과 친구 사귀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서덕희, 2013).

아동청소년기에 친구의 지지는 낯선 학교와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지자원이 된다. 언어적 장벽 때문에 한국 친구들과의 사귀기가 어려울 경우 비슷한 이주배경을 가진 선후배 간의 교류는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친구들과의 멘토·멘티 활동은 학교 생활의 어려움, 심리적 고립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우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과 한국 출생 학생들,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고립감과 외로움, 정서적 단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3. 넘어야 할 장벽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인한 가족 불안정성을 경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모자 관계설정 의 어려움, 엄마와의 분리 경험, 엄마의 낯선 육아방식으로 인한 갈등, 새 가족을 형성한 엄마를 만나는 일들을 경험한다. 입국 초기 문화와 언어적 차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으며 적응 기간을 지내고, 학교 생활의 시작,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 가족과의 관계, 한국어 사용능력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큰 변화를 경험한다. 새로운 사회에서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갈등과 문제 앞에서 좌절과 슬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취하며 적응을 한다.

이주의 경험은 자신과 타인, 가족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 인식 구조를 바꾸고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기도 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근거로 삼아 나와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자신만의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엄마에 의해 갑자기 이주를 경험했지만 이주 과정 속에서의 경험, 한국 정착 과정과 현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마주하며 사고의 전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실천하고 있다.

1.3.1. 마음껏 말하고 싶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비롯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언어적응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양영자, 2016; 김향숙, 2017). 연구참여자들 중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는 모두 청소년기에 입국한 경우이며 비교적 어린 시절에 입국한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한 언어 사용은 또래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이나 초등학교 입학 전 북한식 말투가 교정이 되면서 말투에서 드러나는 탈북민, 중국인의 특징이 부각되지 않았다.

“제가 북한말투, 조선족 말투가 심했던 게 아니어서 막 어린아이였을 때 니가 애들이 잘 못 느꼈어요. 저는 다행이도.....” (연구참여자 2)

“제가 조선족 말을 했었는데 완전 다른 게 아니라 북한말처럼? 살짝 억양이랑 단어가 다를 뿐이라서 애들이랑 그냥 잘 지냈어요.” (연구참여자 3)

언어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청소년기에 입국한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은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왔고, 입국한 지 3개월 만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학교생활에 던져진다. 자신의 이름을 한국말로 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정체성의 혼란,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 등의 원인이 된다(오인수, 노은희, 2019). 낯선 세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이들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때로는 스스로 고립을 택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같이 살던 친구 ○○ 만났는데 중국어 다 잊었어요. 어렸을 때 와서. 그러니까 애는 한국어를 말 잘하고 중국어를 잊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나는 한국어를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좀 신나는 기분이..... 속상한..... 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6)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기 싫어요. 한국말 모르니까. 한국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 안 해요. 쉬운 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재미있는 얘기 같이 못하니까 그런 게 잘 안 돼요.” (연구참여자 8)

언어능력은 단순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말하기, 듣기와 같은 발화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 활동을 포함한 이해, 표현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한국으로 이주한 두 연구참여자는 말하고 듣기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으나 글쓰기와 읽기, 역사와 문화 이해가 필요한 학습 활동에서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학습 공백을 경험하고 하나원 퇴소 이후 바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제도 교육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학습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다. 낮은 학습성취도는 무기력, 좌절감, 자존감 상실 등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

게 한다.

“우리 엄마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 와서 유치원 안 가고 바로 초등학교 보낸 거. 기초교육부터 시킬걸. 바로 초등학교 가니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너무 못해요.” (연구참여자 5)

“못 알아들었고..... 저 중국에서 영어도 잘 했어요. 그런데 오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난 여기서 뭐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공부도 다 어려워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운거예요. 시험 못보면 애들이 공부 못한다고 싫어하고. 그때부터 고개를 안 든 거 같아요. 자신감 없고 공부는 어렵고. 그때 잘 했으면 지금 원하는 고등학교 갔겠지요?” (연구참여자 4)

1.3.2. 상처투성이 가족과 함께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장 배경과 가족에 대해 이해하였다. 부모와 평탄하지 않은 가정환경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성장하면서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서 자신의 역할과 가족에서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현재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중국인 아버지는 연구참여자가 5살 때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투병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랐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엄마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만 했는데 중학생이 지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 엄마의 삶의 무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였고 이제는 아빠 노릇을 해야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자랐다고 표현했다.

“혼자서 두 명 키우기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 엄마가 아침 일찍 일을 나가세요. 초등학교 때는 별로 엄마가 안 힘들어 보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철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 보니까 철들고..... 집안일 도와주고..... 줌..... 아빠노릇?은 하고 있어요. 생각은 했으니까.”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5의 중국인 아빠는 매일 술을 먹고 가족들을 폭력으로 위협했다.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며칠씩 집을 비웠기 때문에 어린 오빠와 함께 둘이 지내는 날이 많았고 아버지의 폭력을 두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린 시절 아빠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까지도 아빠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반면에 엄마에 대해서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엄마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중심에 자리잡게 했다.

“중국에서는 엄마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빠는 일 안 나가고 술 먹고 게임하고, 엄마 항상 돈 모으러 일하러 다니셨어요. 아빠가 좀 난폭하세요. 오빠를 때리는 사람으로 기억이 박혔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아빠라고 하겠어요. (중략) (하고 싶은 거 엄마한테 얘기해봤어?) 말하기가 좀 그래요..... 엄마가 양쪽(오빠와 동생)에서 다 그렇게 해줘야 하니깐 말하면 또 짐이 될 것 같고, 빨리 돈 벌어서 엄마한테 돈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졸업하면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돈 벌어서 엄마한테 주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2는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불화를 보며 자라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다. 탈북한 엄마를 중국인 아빠가 구해줘서 결혼을 하고 한국까지 함께 왔지만 세대 차이 때문에 이혼을 했다. 가정 불화는 엄마의 자녀양육 거부로 이어졌고 결국 아빠와 함께 부자가정 생활시설에서 지내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가출, 학교 결석 등 일탈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을 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부단히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성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안 키우겠다고 해서 친구네 집에서 살기도 했고 보육원에서 산 적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사도 많이 갔고 되게 불안정하니까 친구 사귀는 방법도 잘 몰랐어요. 부모님들 맨날 싸워가지고 성격이 되게 얄전하고 소심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되게 무시

워하고 약간 기괴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성격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개그콘서트 이런 거 보고 공부했어요. 제가 되게 똥똥해서 많이 놀리기도 했어요. 외적으로 놀리고 성격적으로 놀려서 ‘내가 변해야겠다’ 이려고 다이어트도 엄청 열심히 하고 개그 공부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4는 중국에서 조부모님에게 맡겨져 자라다 엄마의 초청으로 입국한 사례이다. 엄마는 중국인 아버지와 재혼을 하였고 연구참여자가 11살 때 여동생을 낳아 현재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동생이 태어남으로 인해 설 곳이 없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힘들어했으며 부모님의 관심밖에 있는 자신의 삶을 슬퍼하기도 했다. 자기 스스로 ‘애정결핍’ 상태라고 말하며 엄마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을 표현하면서도 ‘친밀감이 느껴지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의 팍팍한 삶을 이해하기도 하며 자신의 자리,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아빠랑은 좀..... 안 친해요. 동생 낳은 뒤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해요. 집에서는 아예 말을 안 해요. 관심 다 동생쪽으로 쏠리니까 애정결핍? 아예 요즘 관심 없으니까 저에 대한 거를 잘 안 물어봐요. 눈 뜨면 일가시고 잠들면 들어오시고 바쁘니까 얘기를 못하니까..... (가족이 어땠으면 좋겠어?) 그래도 친밀감이 느껴지는 가족? 친밀감이 아예 없어요. 아~~~(한숨)..... 그냥 친해지기 어려운 거?”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7은 아빠의 폭력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살았던 때가 있었다. 아빠의 폭력은 엄마를 힘들게 했으며 그런 모습은 엄마조차 싫어지게 만들었다. 잘 적응하고 있던 학교에서 전학을 가고, 또 얼마 안 있어 갑작스럽게 이주를 하게 되어 엄마에 대한 마음의 벽은 더 쌓였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아빠를 떠나 혼자 살고 싶었던 연구참여자 7은 하나원 퇴소 후 기

숙생활을 하는 대안학교로 가길 원했으나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바람에 엄마결을 떠나지 못했다. 적응 초기 기간은 엄마를 원망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지만 아빠가 없는 지금은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로 여기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싫었어요. 아빠가 맨날 엄마한테 나쁜말 쓰고 음..... 때렸어요. 그리고 아빠를 싫어했어요. 제가 그때는 빨리 크고, 빨리 크고 혼자서 나가고 싶었어요. 전학 가서 엄마랑 같이 살게 돼서 싫었어요. 엄마가 싫은건 아닌데 그냥 멀리서 살고 싶었어요. (지금도 기숙사로 가고 싶니?) 지금은 아니예요..... (침묵) 사이가 좀 좋아졌으니까.....” (연구참여자 7)

2.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

본 절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협상을 자료수집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기술한 것이다. 면담 내용에서 도출한 의미 단위들의 관련성을 밝히면서 구조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 가족, 사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중심의미를 추출하였다. 이주민은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적응전략을 사용하여 문화에 적응해간다. 문화적응은 개인이 새로운 집단과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응의 주체로서 개인 및 집단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김영순, 2020).

개인은 새로운 문화집단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정체성 변화가 나타난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개인과 가족, 사회이다. 따라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이 속한 개인과 가족, 사회(학교, 또래)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 영역은 개인의 정체성 협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주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참여자가 처한 환경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이야기에서 나를 발견’이라는 중심의미에서 각각 ‘선택 없이 시작된 이주에서 나를 이해’, ‘성찰에서 발전한 나의 강점’, ‘중국, 한국 모두 내 나라’의 세부의미를 도출하였다.

가족 영역은 출생국과 한국에서 경험한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정체성 협상에 대한 부분으로 중심의미는 ‘미운 가족을 가슴에 품고’로 나타났다. 세부의미는 ‘엄마의 삶을 이해’, ‘나의 자리 찾기’, ‘계속되는 홀로서기’로 나타났다.

사회 영역은 학교와 돌봄센터, 이주민지원센터 등에서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 정체성 협상이다. ‘우리과 그들 사이에 존재하기’라는 중심의미에서 ‘의사소통의 한계 극복하기’, ‘통하는 친구들에

게서 안정감 찾기’, ‘다름이라는 시선에 대한 거리두기’의 세부의미를 발견하였다. 다음 <표 IV-2>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을 개인, 가족, 사회의 영역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IV-2>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

영역	중심의미	세부의미
개인	삶의 이야기에서 ‘나’를 발견	선택 없이 시작된 이주에서 ‘나’를 이해
		성찰에서 발견한 나의 강점
		중국과 한국, 모두 내 나라
가족	미운 가족을 가슴에 품고	엄마의 삶을 이해
		나의 자리 찾기
		계속되는 홀로서기
사회	우리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기	의사소통의 한계 극복하기
		통하는 친구들에게서 안정감 찾기
		다름이라는 시선에 대한 거리두기

2.1. 개인 영역: 삶의 이야기에서 ‘나’를 발견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주를 경험한다. 부모 혹은 엄마의 탈북자 신분은 자녀들로 하여금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하게 하고, 오랜 시간 엄마의 돌봄 부재를 경험하게 한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 이주를 경험하며 낯선 엄마와의 관계에서 오는 혼란, 새롭게 경험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어려움 등 환경 적응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정주영, 박정란, 2016). 그러나 이주 초기에는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타자와 사회의 차별적 시선으로부터,

나를 둘러싼 고단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경험에 대해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을 이해함으로 갈등을 극복한다.

2.1.1. 선택 없이 시작된 이주에서 ‘나’ 를 이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유년 시절부터 탈북자인 어머니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상황을 보면서 자란다. 불안한 체류 신분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결혼생활은 탈북 여성과 자녀들의 불안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은 약자로 살아가는 엄마의 삶을 지켜보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차츰 이해한다. 언제 엄마가 복송될지 모르는 위협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과 시댁 식구로부터 가해지는 폭행과 폭언을 참아야 하는 엄마를 보며 자란다. 어렸을 때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자랐으나 성장하면서,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입국 후 엄마의 삶을 통해 ‘탈북민’ 인 부모와 ‘탈북민의 자녀’ 인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어머니 말로는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감옥에도 간 적이 있대요. 저 임신했을 때 감옥에 가셨고 중국에서 어떻게 저를 낳았나봐요. 다시 낳고 북한에 잡혀가고 아버지가 꺼내시고 그렇게 하셨대요. 태어날 때부터 스펙타클했지요.” (연구참여자 2)

“중국에 있을 때는 엄마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중국 사람 신분 없으니까 엄마가 다른 곳에 가는 거 좀 무서워해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를 엄마에게서 전해 듣게 되면서 탈북여성의 신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머니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낳고 길렀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의 복송 경험과 중국에서의 불안한 생활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대해 ‘태어날 때부터 생존본능이 강한 아이’, ‘외국인한테 배가 고파 구걸했던 생존력이 강한 아

이’ 라고 말하게 했다. 인터뷰 당시에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스펙타클한 인생’ 을 살고 있다고 말할 만큼 긴장과 위험 속에서 자라왔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8 역시 어린 시절부터 탈북한 엄마가 아빠와 할아버지의 폭력과 위협을 받으며 살아간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결정에 의해 어느날 느닷없이 이루어진다. 갑작스런 이주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별을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며, 숨죽이며 도망쳐야 하는 긴박한 상황을 마주하게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엄마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도망치듯 나온 것 같다고 표현했다. 이주에 관해 자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한국에 온 이후에도 이것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데리고 왔어요. 새벽에 어떤 아저씨가 데리러 오고..... 그때부터 모험을 시작했어요. 일 년 정도 걸려서 한국에 왔어요. 교도소 같은 데도 가서 살고 밤마다 견고..... (한국에서 엄마 만났을 때 어땠어?) 짜증났어요. 나 버리고 가버렸고, 고생하니까 그게 제일 생생하니까.” (연구참여자 4)

“한국에 오는 거 생각 안 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와서 살게 될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애기 꺼내고 10일 만에 바로 왔어요. 갑자기 한국에 가라고 했어요. 그냥 왔어요. 공부를 이제 좀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한국에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싶어요.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말을 안 했어요. 간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 친구들이랑은 지금도 연락 못해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4와 7의 경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주에 대해 초기 인식은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 연구참여자 4는 이주 과정 중에서 엄마가 돈을 맡기며 돌봄을 부탁한 일행이 도주해버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혼자가 된 것에 대해 공포를 느꼈고 이것이 엄마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한국 공항에서 엄마를 만났을 때의 첫 느낌을 ‘짜증남’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주 과정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그리고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연구참여자 7은 청소년기에 한국에 오게 되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이주에 대해 더욱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7은 중국에서도 잦은 이사를 다녔는데 갑자기 낯선 나라로 이주까지 하게 되어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것을 염려하였다.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한마디 인사도 못한 채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것에 대해 화가 났으며 이 때문에 이주 초기에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와의 관계도 어려워했던 경험을 했다. 갑작스런 이주로 인한 혼란과 이주 강행에 대한 부모에 대한 반감은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난 공통된 경험이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이주에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의사는 조금도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들은 자신이 왜 이주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 초기 두려움과 반감 정서를 가지고 있으나 성장하면서 ‘엄마를 위한 결정이자 나의 삶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모국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여 살기까지의 과정은 ‘나’를 둘러싼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는 성숙의 단계로 이끌었다.

2.1.2. 성찰에서 발전한 나의 강점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이 처한 문제적 현실과 환경 적응에 대한 실패와 부적응이 강조되었고 부적응은 대표적 키워드가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역시 자신을 둘러싼 환경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문제 상황을 직면할 때 회피와 거절로 도망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패와 회피로 끝나지 않고 문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자신만이 가진 강점을 발견하여 자존감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보여주었다. 학교교육환경의 변화, 가

정의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 등 급격하고 낮은 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고자 노력한 것이다. 특히 학생 신분으로서 학업적인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스스로 답을 내리는 과정을 겪으며 자기의 강점을 발견해가는 긍정적 경험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1은 초등학생 때 수학·과학·미술 영재반 활동을 하며 여러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중학교 입학 즈음 사춘기를 겪으며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 중1부터 중3 마지막 학기까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번도 후회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자신의 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처음으로 후회를 했다. 고등학교 입시 문제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때부터 공부를 스스로 했다. 고등학생이 된 지금은 초등학생 때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나’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타인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현실을 직면한 후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다시 도약하고자 한 것이다.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거 후회해요. 공부 좀 할 걸. 인문계를 가기에는 가면 좀 망할 것 같아 가지고. 여기가 컴퓨터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좀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간 거예요. (지금 공부에 대한 네 생각은 어때?) 공부 좀 빡세게 하고 있기는 해요. 방학이라 지금은 게임만 하는데 시험 한 달 전 되면 컴퓨터 선 다 뽑고, 폐북도 다 삭제하고 집중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교과목우수상도 받고 지금은 공부 잘해요. 그냥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2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의 불화를 보며 자랐다. ‘불안정한 가정사’가 있다고 말하는 연구참여자 2는 가정의 문제를 가출과 학교 결석, 일탈 행동으로 분출하며 혼란스러운 사춘기 시절을 지냈다. 그러나 중학교 때 만난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는 연구참여자 2로 하여금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질문을 하게 하였고 자신이 가진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해 보고자 하는 성찰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신의 일탈에 대한 결과가 부모님과 선생님의 심한 간섭과 지도로 나타나자 스스로 ‘더 이상 이런 문제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와 학교생활과 학업에 집중하면서 성적이 향상되었고 진로 개발에 집중하여 ‘나 자신에게 90% 만족한다’는 자아만족감과 성취감을 나타내었다.

“제가 가정사가 불안정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후반까지 사고를 엄청 많이 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는 뭘 애라고 계속 얘기해주시고 올바르게 지도해주셨어요. 내가 이제는 부모님한테 전화 안 하게끔 이제 잘하자 생각하고 중3부터 수행평가도 잘 챙기고, 교복도 입고.....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중3 때 열심히 해서 등수를 150등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 공부로 자신감이 생기고..... 제가 애들보다 늦게 시작한 게 있으니까 내신 따기 쉬운 인문계 고등학교 갔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애들보다 더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힘들긴 한데 재미 있어요.”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1과 2의 사례는 개인의 삶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문제시 된 상황’에 멈추어 있지 않았다.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극복하고자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성적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도 꽤 괜찮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효능감을 맛보는 긍정적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 6에게서도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6은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지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엄마와 단절된 시간이 길었다. 조부모의 손에 길러졌던 연구참여자 6은 모국에서의 잦은 이사와 엄마가 없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라왔고 지금도 평일에는 혼자 생활

해야 하는 형편이다. 연구참여자가 인터뷰 중에 가장 많이 한 말은 ‘나는 혼자서 잘해요. 빨리 적응해요. 어렵지 않았어요’ 였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는 다른 나라에서 이주하는 중도 입국청소년들과는 조금은 다른 경로를 거친다. 발각되지 않기 위해 밤에만 이동을 하고 철저한 보안과 단속 속에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도 이 과정에 대해 동일한 진술을 보인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6은 이주 과정을 ‘여행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한국에 오기 전 거쳤던 제3국의 나라들에서의 경험을 ‘즐겁고 재미있던 곳’으로 여기고 있었고 하나원 생활도 ‘나오고 싶지 않은 곳’으로 여길 만큼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국에서 겪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처음엔 긴장하고 힘들어했지만 빠르게 익숙해지고 받아들임으로써 긴장을 해소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엄마 없이’ 혼자서 생활해야만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혼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씩 해결해가며 자신의 강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처음엔 무서운 마음이 많았으면 지금은 그냥 모르면 모르는구나 그래요. 다음에 알면 돼. 나는 새로운 장소에 살 때는 좀 빠르게 잘할 수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도 장소를 자주 바꾸어요. 엄마가 새아빠를 말할 때도 (데려왔을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생활 속에 적응하고 빨라요. 뭘 하려면 우리 엄마를 매일 기다려야 하니까, 그 후에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면 돼’ 혼자 말하고 해요. 처음엔 무섭고 긴장 많이 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 시기를 지내고 있다. 학교에서 시작한 방과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후 전문 자격증을 따며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도 하며, 아직은 막연하지만 한국에서 점점 적응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기대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 수준에 있어 개별적 차이는 보였지만 ‘현재 자신

이 하고 싶은 것’, ‘내가 준비해야 할 것’ 들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진로 성숙 수준과 진로에 대한 결정 및 선택에 대한 확신도 학습에 대한 자신감, 교외 활동을 통한 자기계발 경험과 성취감, 주변인의 지지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1과 2는 교과 학습 향상에 대한 성취와 주변인들의 지지, 성취감 등이 기폭제가 되어 현재 자신의 진로를 위해 전문 자격증 취득, 대회 참여, 학원 강습, 구체적 직업 및 진학 계획을 하고 있다.

“제가 공부 안 할 때 엄마는 그냥 계속 다음에 잘하면 된다 계속 넘기고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좋아지니까 엄마가 칭찬해주셨어요. 잔소리하거나 혼내신 적 없어요. 기다려준 것 같아요. 컴퓨터 자격증 땀고, 2학기부터는 코딩학원 다니려고요. 대학도 컴퓨터 쪽으로 가고, 제 최종 목표는 구글 입사예요.” (연구참여자 1)

“사춘기 때 꾸미다가 호기심을 갖다보니 진로로 바뀌었어요. 적성에도 맞고 흥미도 있고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나는 이쪽인가보다 하고 학원 상담 통해서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제 꿈이 바뀌었어요. 이미 국가자격증 하나 땀고 대회도 많이 나가서 상도 많이 탔어요. (활짝 웃으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고, 본 직업은 웨딩샵 이런 데서 일하고 경력 쌓아서 대학원에 가서 교수도 하고 싶고 사업도 꾸리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2)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자신의 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참여자 4는 지금 당장은 꿈을 접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취미 생활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탈하고 싶은’ 심리적 갈등을 느낄 때마다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며 현재의 방해요소를 정리하고 스스로 삶의 정비하며 ‘꿈을 위한 오늘’을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4는 평소 친구들에

게 놀림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중 앞에서 춤으로 자신을 보여줄 때는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박수와 칭찬을 받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 춤은 단순한 취미 활동과 꿈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신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해도 끝까지 이루고 싶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고치고 빠тол어지기 싫어요. 학교에서는 모범 보이고 싶어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저 스스로도 기특한 거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연예인 됐을 때 잘 보여야 하니까. 이루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중략) 춤은 포기 못해요. 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무대에 섰을 때 선생님들이랑 애들이 제 춤을 보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응원해 주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인상적이었구나. 그렇게 생각 하면 자신이 있어요. ” (연구참여자 4)

2.1.3. 중국과 한국, 모두 내 나라

이주민의 정착은 출신 국가에서 새롭게 거주하게 된 국가로 일차적 충성을 이전하는 과정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초국가적 모델이 새로운 시민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Castles & Miller, 2013).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전은 이주민들과 출신국의 교류와 이동성을 쉽게 하며 촉진하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은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국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함으로써 모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및 확대시킨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출신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왕래하고 출신국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를 계획하는 형태로 초국적 행위를 실천하고자 한다. 중국으로의 유학과 친지들의 한국 방문, 대학 진학과 진로 계획 등 자신의 초국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경을 가로지르는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의 초국적 진로 모색은 어머니의 모국에 있는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이민경, 2016). 그러나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다른 배경의 중도입국청소년과 달리 자신

의 출생국이 ‘엄마가 다시 갈 수 없는 나라’ 이기 때문에 초국적 진로와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아직은 혼자만의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보인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결정으로 자신의 선택 없이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이주 이후 대학 진학과 진로 선택 영역에는 중국으로의 역이주를 기대함으로써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정체성 협상을 실천한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함으로써 한국 시민으로 성장하길 원한다(김현경, 2015). 그러나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입국 시기와 발달 연령,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국가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문에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자아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한다(신현옥, 2011). 연구참여자들의 부계 가족들은 모두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엄마가 일자리를 찾아 집을 비우는 동안 또는 부모가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여 정착 기간을 갖는 동안 부계 가족에게 맡겨져 자랐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했으며 기회가 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는 이야기를 꺼냈다. 또한 엄마의 고향 북한과 자신의 출생국인 중국에 대해 고정적 소속감을 갖기보다 두 국가 모두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에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도 했으며, 그에 따라 어느 한 국가 소속으로 간혀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1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왕래하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 있는 아버지의 형제들은 연구참여자 어머니를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기회가 있을 때는 참여자도 중국을 방문하여 친지들을 만나고 있다. 어머니의 아픔이 있는 나라이지만 참여자에게 있어 중국은 아버지의 가족, 자신의 또 다른 가족이 있는 나라이기에 언제든 갈 수 있는 나라로 여기고 있다.

“가끔가다 삼촌들이 저 보러 중국에서 오세요. 오면 삼촌네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중국 가족들이 엄마랑 저 보러 오시죠. 저도 이

번 겨울 방학 때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중국에 사촌 누나, 고모, 삼촌들 아빠 형제들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5의 어머니는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이야기할 때 ‘잘해준 것도 없고 도와준 적도 없는 사람들’, ‘죽을뻔했을 때도 모른척한 냉정한 사람들’ 이라고 표현했다. 연구참여자는 당시 어렸을 때라 직접적인 경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로 가족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이주 후에 어머니와 아빠가 연락을 하고 연구참여자도 방학을 이용해 중국에서 명절을 지내고, 축제와 행사를 참여하며 중국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에게 있어 한국과 중국은 다른 의미를 지니는 곳이면서 동시에 ‘나’ 를 존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기회가 되면 언제든 오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초등학교 때는 방학 때 중국 몇 번 놀러 갔었어요. 기회만 되면 갈 수 있어요.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못갔어요. 가면 중국 전통 의상도 입고 얼마나 좋은데요. 3주는 넘게 있어요. 고모네 집에도 있다가 가면 친척들 만나서 용돈도 받고요. 중국에 가면 재미있는 거 많아요..... (중략) 한국은 엄마한테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세상, 자유로운 세상, 편하게 설 수 있는 곳이고, 저한테 중국은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갔다 올 수 있는 곳이죠. 중국은 그냥 놀러가는 곳, 언제든지 갔다 올 수 있는 곳이죠.”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3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어머니를 따라 중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어렸을 때부터 학구열이 많았던 연구참여자 3의 어머니는 북한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배경으로 인해 입학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미련은 어린 딸에게 그대로 투사되어 딸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엄격하게 시키게 되었다. 맞으면서까지 한국어를 배워야했던 연구참여자는 어머니와의 갈등은 ‘공부’ 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어머니의 공부에 대한 열의는 남달랐다. 어머니의 해외 출장은 딸의 ‘해외 유학’ 으로 이어졌고 2년 동안 중국 국제중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유학생

활을 통해 중국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저는 중국에 2년 갔다오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때 잘 몰랐는데 중국 갔다오니까 중국어도 잘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외교관 통역사를 엄마가 추천해줘서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중국 국제학교 가서 공부하고 외국인이랑 대화도 많이 해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중국이랑 다른 걸 보고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언어도 배웠어요. 이제는 외교관이 진짜 되고 싶어서 외교관으로 진로를 확실히 정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3)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중 청소년기에 이주한 자녀들은 이주 초기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학업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만 한편으로는 뛰어난 모국어 실력으로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진학에 유리한 면을 가진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이주해서 현재 한국어보다는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대부분 중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어서 모국어를 잊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 때문에 중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국제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대학진학도 중국으로 계획하고 있다.

“나는 외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외교를 가면 좀 쉬워질 수 있어요. 외교 가면 중국어를 전공할 수 있어요. (중략) 나는 18살 되면 중국에 갈 수 있어요. 중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엄마는 못가니까 나는 중국도 왔다가 한국도 왔다가 살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6)

“저 만약에 계속 한국에 있으면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요. 중국어를 계속 할 수 있는 학교요. 졸업한 다음에는 중국에서 살고 싶어요. 중국에 있는 대학, 예능 쪽 있는 대학 가고 싶어요. 영화배우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연구참여자 7)

“나는 18살이 되면 중국에 가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벌고 중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8)

정체성이란 다양한 삶의 환경 변화를 마주하며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주체적인 삶이 드러나는 성격을 갖는다. 정체성은 삶의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맥락이 같을 때 비슷한 유형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엄마의 탈북’, ‘중국 출생’, ‘잡은 이사 경험’, ‘엄마와의 분리 경험’이라는 공통의 배경에서 공통의 경험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같은 배경이라도 개인마다 상황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개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 출생자’라는 집단 안에서도 가족 경험과 또래 관계, 자아인식에 따른 삶의 맥락이 달랐기 때문이며 맥락의 차이는 한국에 온 이후 학교라는 사회문화적 공간에서 탈북학생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인식하고 개별적인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엄마가 없는 상황, 친구 관계, 학습 환경,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반응 속에서 자기 이해와 경험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체성이 변하고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에게서는 이주를 시작하게 된 연령에 따라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과 특정 나라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4세 이전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닌 자녀들,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입국한 자녀들, 초등학교를 마치는 사춘기 무렵 입국한 자녀들로 나뉘었는데 입국 연령별로 이주에 대한 경험과 기억, 느낌은 사뭇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저도 어머니가 어차피 북한, 북한도 한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에요. 같은 땅이니깐. 어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하면 그냥 한국 사람이다. 저도 한국 사람이다 하고 아빤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구참여자 2)

“아직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중간? 뭐 경기 같은 거 보

면 아빠는 중국 응원하는데 난 응원을 못해주겠어요. 한국에는 살고 있지만 다 버리지는 못하겠어요. 다 저기(중국)에 있으니까.” (연구참여자 4)

“아빠는 중국에(가서) 살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으니까 말할 사람 없잖아요. 우리 엄마도 중국에 같이 가면 좋겠어요. 중국에 가서 같이 살고 싶어요. 나는 다 괜찮아요. 나는 중국에 살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중국이 좋아요 실제로는. 18살에는 갈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6)

출생 국가에서의 성장 경험은 이들이 출생국과 이주국에 대한 정서적 거리의 차이를 갖게 한다. 중국에서 이렇다할 기억이 없을 어린 나이에 이주한 참여자들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기억, 자신을 돌보고 키워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중국에 대한 미련을 남게 한다. 특히 사춘기 무렵에 이주한 참여자들은 아직은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친밀감을 강하게 나타냈고 만 18세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중국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강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가정의 정체성을 특정한 물리적 공간이나 국가로 한정시키고 여기에 토대를 두는 한국사회 이주정책과도 간극을 보이는 부분이며 한국사회가 이들을 단일한 정체성이나 범주로 묶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민경, 2016).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한국인으로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들의 뿌리를 존중하지 않는 주류인들의 힘에 의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 정체성은 사건과 행위를 기점으로 명료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무의식 혹은 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바탕에 두고 이들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2. 가족 영역: 미운 가족을 가슴에 품고

이주 2세대의 정착과 적응에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가족 유대감과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김유연, 손명아, 김석호, 2018). 탈북청소년의 이주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가족 단위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 단계에서도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때 부모와의 동거 여부보다는 실제적인 정서적 교류와 같은 가족 유대감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홍순혜 외, 2010). 가족은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필요한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오히려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유연 외, 2018).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행복,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에 있어 가족 구성원과의 원만한 관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관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다시 시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연민과 끈끈한 가족애를 느끼기도 하는 등 복잡한 경험을 하며 가족을 이해한다. 가족 이야기에서 핵심은 ‘엄마의 삶’을 이해하는 것과 가족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탈북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엄마의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마주하며 연민, 아픔, 그리움을 함께 느끼며 엄마를 이해한다. 이와 동시에 새롭게 형성된 가족 관계에서 외로움과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가정 내에서 ‘아빠 노릇’, ‘가정을 함께 돌볼 사람’, ‘독립해야 할 나’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2.2.1. 엄마의 삶을 이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엄마의 탈북 스토리를 듣게 되면서 엄마의 선택과 현재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어린 자신을 남겨두고 집을 떠나야 했던 엄마, 한국에서 극적으로 재회했지만 또 다시 자신을 떠나버린 엄마, 자신의 꿈을 존중해주지 않는 차가운 엄마를 마주한다. 엄마에 대해서

운함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이해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겪은 고생과 한국에 오기까지 엄마가 겪었던 험한 시간들을 이해함으로써 엄마에게서 받은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며 성장한다.

연구참여자 2의 엄마는 몇 번이나 북송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지켜낸 딸과 한국에 왔지만 결국 딸을 포기하고 재혼을 선택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별거와 이혼, 보육원 생활을 하면서 가정불화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현재는 엄마의 선택을 이해하고 엄마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가 북한에서 되게 가난하셨대요. 그래서 못해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꽃제비였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못누렸던 것 다 누리시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거죠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엄마가 한국 와서 엄마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는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 그렇게 못살았던 게 후회가 된다고 말씀들 하세요. 원망도 하고.....”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4는 엄마의 무관심으로 인해 엄마에 대한 원망을 가장 많이 표출하고, 엄마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진술하였다. 특히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엄마의 양육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였다. 갈등 상황이 반복될수록 엄마와의 심리적·물리적 거리가 멀어졌고, 이제는 가족 구성원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않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면담을 하는 동안 엄마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주며 엄마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엄마의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저희 엄마는 집에 돈이 없었대요. 공부는 잘했대요. 전교 1등도 하고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꿈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반대하셨대요.

그 쌓인 거를 저한테 풀어요. 북한에서 많이 힘들었던 거를요. 엄마가 말하는 거 보면 엄마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거 싫어하고 예전 얘기 꺼내는 걸 싫어해요. 북한에서 찍은 사진 보면 웃고 있는 게 없어요. 가족들 두고 혼자 와서 미안하다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미안하다고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3의 초등학교 생활은 ‘엄마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는 장(場)이 되었다.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저 ‘북한 사람, 중국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으나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 교육을 통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면서 엄마에 대해, 엄마의 나라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도 타인에 의해 막연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 본인의 경험과 판단에서 확실한 생각으로 정립시켜 가고 있었다.

“어릴 때는 그냥 북한분, 중국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교육을 받으니까 엄마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탈북했을까 이런거”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8에게 있어 한국은 엄마에게 ‘강력한 힘’을 준 나라이다. 탈북민 신분으로 살던 엄마는 중국에서 아빠와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힘겹게 살아왔다. 하지만 2년 전 엄마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엄마가 아빠보다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국 입국 전 한국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다는 것을 통해 엄마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가족 내에서 엄마의 위치는 철저한 약자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엄마를 2년 만에 한국에서 만나 함께 살게 되면서 힘의 우위가 역전된 것을 보며 새로운 가족 경험을 하고 있었다. 엄마의 성격이 ‘호랑이’ 처럼 무섭게 변했다는 표현에서 한국에서의 삶이 엄마의 삶에 막강한 힘을 실어 준 것을 느끼

게 된 것이다.

“엄마아빠는 중국에서 더 친했어요. 한국에 와서 가끔 싸웠어요. 중국에서는 안 싸웠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엄마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힘 없어요... 중국 사람 신분도 없으니까 아빠 없으면 엄마가 다른 곳으로 잡혀갈 수 있어서 좀 무서워서. 지금 엄마는 다시 북한에 잡혀가지 않아요. 아빠 무섭지 않아서 좀 많이 싸워요. 중국에서는 무조건 아빠 말 잘 듣고 그냥 지냈는데 이제는 엄마 마음이 편해서 엄마도 말하니까 싸워요. 아빠랑 싸울 때 호랑이 같아요. 엄마가 이제 더 무서워요.” (연구참여자 8)

2.2.2. 나의 자리 찾기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성장하며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아빠를 대신해 어린 동생과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 힘겹게 돈을 버는 엄마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력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하며 가족 내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부모의 상황을 고려해 자기의 욕구와 선택을 조절하는 것은 중도입국청 소년들이 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는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수진, 김현주, 2016).

“동생이 중학생 되면 제가 성인이 돼요. 그럼 동생 학원을 보낼 거예요. 공부 시킬 거예요. 엄마는 힘드니까 제가 돈 벌어서 동생 돌봐줘야지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 안 해서 후회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동생한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거예요.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 노릇해야지요.” (연구참여자 1)

“엄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제가 다 했죠. 설거지니 밥, 빨래 이런 거 다하고 집안 청소 다하고. 제가 엄마 머리도 감겨 드리고 병수발 들고. 엄마가 우리 ○○밖에 없지 그랬어요. 그럴 땐 기분이 좋아요. 엄마가 저를 많이 의지해요. 빨리 돈 벌어서 엄마한테 돈을 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하지 말걸 후회하고 그래요. 항상 미안한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속상해 하시니까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7은 한국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엄마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 점차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국은 엄마가 ‘살 수 있는 곳’ 이기에 엄마를 위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엄마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한국에 오게 된 것에 불만이 많았고, 그런 엄마와 떨어져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될 수 있는 대안학교 진학을 원했을 만큼 엄마와의 사이는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였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엄마가 한국에서만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 자신이 살 곳과 의미를 두어야 할 곳은 한국이며,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 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여기는 엄마가 있는 곳? 엄마가 중국보다 여기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보여요. 일 많이 하는 건 비슷한데 여기서 더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편해보이니까 좋지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 오길 잘한 거 같아요. 엄마가 한국에 데려왔을 때 맨처음에는 화나고 싫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없어요. 처음엔 맨날 중국 가고 싶다고 했지요.” (연구참여자 7)

2.2.3. 계속되는 홀로서기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 을 만들어간다. 그러나 기대했던 엄마와의 동거 생활은 생활방식과 문화 차이로 갈등이 생겨나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형성된 새가족과의 낯선 생활은 심리적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정주영, 박정란, 2016).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여전히 혼자 있어야 하는 ‘홀로서기의 삶’ 은 가족 관계 속에서 ‘나의 의미’ 를 새롭게 찾아가도록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으로 이주 후 새로 접하게 된 가정은 새아버지가 있

는 곳, 나이 차이가 많이 태어난 어린 동생이 있는 곳, 오랜 시간동안 떨어져 지내다 만난 엄마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새아버지와의 소통이 어려움과 단절된 엄마와의 정서적 거리로 인한 소통의 부재 현상이 나타난다(조혜영, 2012). 청소년기 가정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받고 안식을 얻어야 할 가정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면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등 홀로서기의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 엄마의 부재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언제나 있었던 일로 가볍게 여기기도 하며, 가정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자신의 꿈과 미래를 향한 구체적 준비로 대신 표현하기도 하며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한다.

“몰래 새벽에 만나서 ○○ 지역에서 밤 보낼 때도 많고 집에 잘 안 들어가요. 부모님은 몰라요. 늦게 오니까 자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뭐 관심 없어요. 동생한테만 관심있고 저는 존재감이 없지요. 순해보이니까 이상한 것 안 할 것 같다고 하세요. 원하는 것은 많은데 엄마가 다 싫어하니까 예술쪽으로는 아무 과라도 괜찮으니까 해보려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요. 공연, 연극 보고, 콘서트 다니고 흥대가서 버스킹도 보고요. 그러다보면 제가 뭐가 부족한지도 알게 되고, 전문가 선생님들도 만나서 배우기도 하고요. 하다보면 할 수는 있겠지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6은 가족 구성원과 겪는 문제적 상황을 ‘독립적인 삶’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엄마의 부재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냈던 중국에서의 삶의 연장으로 이해했다.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지내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공간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했으며, 생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가끔씩만 만나며 생활하였기에 가족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6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혼자 보내는 시간을 더 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전에 아빠(친아빠) 보고 싶어 이런 느낌 절대 없어요. 우리 엄마 한 달 동안 출장가면 보고 싶은 느낌 없어요. 엄마가 다시 오면 어 엄마 왔네 그냥 그런 느낌. 엄마가 보고 싶었어? 물어보면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마음 없는데 거짓말 하고 그냥 어 하고 넘어가요. 우리 엄마도 알아요. 내가 안 보고 싶어하는 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도록 엄마한테 전화 하지 않아요. 나는 엄마가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별로 없어요.” (연구참여자 6)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를 왔지만 기대와 달리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 못한다. 중국에서보다 심리적·경제적 환경은 나아졌지만 전문적 기술 없이 단순노무직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열악한 경우 자녀돌봄과 일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이해하면서도 엄마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해 부모-자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2.3. 사회 영역: 우리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기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는 부모의 특성과 양육태도, 교사와 친구 관계,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차별, 학업 성적, 한국어 실력 등이 영향을 미친다(박진우, 장재홍, 2014). 본 절에서는 또래와 교사, 지지체계 등 사회적 영역에서의 정체성 협상 과정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 2세대의 학교 적응은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진다(최영미, 2015). 청소년기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의미가 확장되는 동시에 교사와의 원활한 관계가 학교생활 만족도와 청소년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성은모, 김균희, 2013; 김유연, 손명아, 김석호; 2018).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또래 친구들과 담임교사의 지지

는 탈북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삶의 만족도에서도 이주민 사회 내에서 맺는 관계보다 이주국에서 새로 형성하게 되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연 외, 2018).

이민자와 그 자녀세대의 사회적 관계는 당사자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그 자신이나 부모가 이주해왔다는 점으로 인해 학업, 정체성, 사회성 등 성장 제반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특히 외국성장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게 나타난다(무지개청소년센터, 2016).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한국 진입 후 ‘탈북친구들’ 과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 존재했으며 입국 배경과 적응 유형에 따라 이 두 공동체에 대한 정서와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탈북 배경을 자기의 것으로 이해한 참여자들은 자신을 ‘탈북민’ 이라고 여기며 탈북청소년 집단과 동일시하는 한편, 탈북민을 차별하는 시선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두기와 비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탈북민에 가깝게 여기는 정도는 입국 연령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탈북과 북한과 한국이 아닌 제3의 국적 즉,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크게 나타내고 있었다. 사회적 영역에서 정체성 협상은 ‘의사소통’ 과 ‘집단 소속감’, ‘편견에 대한 거리두기’ 의 경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3.1. 의사소통의 한계 극복하기

다문화 환경에서 언어문화적응은 새로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는 사회통합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비롯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언어적응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양영자, 2016; 김향숙, 2017). 연구참여자들 중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는 3명으로 모두 청소년기에 입국한 경우이며(연구참여자 6, 7, 8) 비교적 어린 시절에 입국한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아기에 입국한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북한 억양의 영향을 받아 유치원 시기에 또래와 차이점은 있었으나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일반 한국 학생들과 거의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아 언어적 문제가 없었다.

청소년기에 입국한 연구참여자 3명은 한국어 사용에 대한 제약으로 친구 사귀기, 교과학습 이해, 교사와의 대화 등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개인의 언어능력 수준과 친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양상에 따라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과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자신의 언어 능력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직면을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회피와 거리두기, 노력하기 등의 전략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5는 친구와 교사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낯선 학교생활을 적응해 갈 수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수업 시간만 되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달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이 중국 사람이며, 한국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교사와 친구들에게 알려 외국인으로서 대해주기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공개는 오히려 교사와 친구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기회가 되었고 수업에 참여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배려와 멘토 친구를 만나 중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생활하며 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냥 친구들 따라했어요. 수업할 때 내 이름을 부르고 자꾸 시키니까 깜짝깜짝 놀라서 심장이 안 좋았어요 너무紧张해서. 제발 내 이름 부르지마 매일 기도했어요. 엄마한테 나 중국에서 왔다고 선생님한테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다음부터 다른 선생님들도 제가 중국에서 온 거 알고 안 시켜줬어요. 그리고 중1 때 만난 멘토 친구 너무 좋아서 2학년 때 같은 반 되면 좋겠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 첫 번째 친구예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8은 기본적인 의사표현과 어휘 사용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는 학교에서만 사용하며 가족과는 모두 중국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가 제한되어 있다.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 학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연구참여자 8의 경우 가정에서의 모국어 사용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한국어 습득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 생활 중 말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언어장벽은 또래 맺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고 학교생활을 심심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8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언어사용에 대한 두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취한 것이다.

“저는 심심했어요. 심심한데 한국 애들이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필요한 말은 하는데 재미있게 하거나 제 표현이 잘 안 돼요. 이야기할 때 너무 긴장해요. 친구랑 이야기할 때 너무 긴장해서 힘들어요. 중국 친구한테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만약에 한국 친구가 이렇게 중국어를 잘한다면 그 친구랑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제일 편해요. 한국말 빨리 늘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8)

그러나 한국어로 친구 맺기에는 한계를 가졌지만 의외로 중국어를 통해 친구를 사귀는 색다른 경험도 하고 있다. 중국어에 흥미를 가진 친구들이 연구참여자 8과 친하게 지내며 중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친한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이다. 또한 말이 잘 통하는 중국에서 온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내면서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같은 출생국 집단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을 부적응의 요소로 지적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언어의 한계 없이 말할 수 있는 출생국 친구들과의 소통은 이들의 안정적인 정서와 적응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입국청소년,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지속적인 모어 학습 기회 제공의 필요성과 이중

언어 활용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생각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중국말로 하면 하고 싶은 얘기 많았어요. 수업 듣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려웠고요. 초등학교 때 한국어반에 중국어 잘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랑만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닌다면 중국어를 계속 할 수 있는 학교 외고 같은 데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말도 많이 배운 게 아니라고 지금 중국 가면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남아있기로 했어요. 더 배우려고요.” (연구참여자 7)

“한국 친구 두 명이랑 친해요. 이 두 명은 저한테 중국말 배우고 싶어서 친해졌어요. 쉬운 단어 가르쳐주면서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중국어 가르쳐 줄 때 너무 기뻐요. 자신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8)

이중언어 화자들은 문화변용 과정에서 성공적인 문화적응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김영순, 2020). 보셔(1997)는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 중에서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모국 문화를 포기하지 않고도 이주국의 주류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이중문화적이라고 정의하였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중에서 청소년기에 온 자녀들은 모국의 중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모국어 사용은 언어부적응, 학습부적응 등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들의 이중문화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정착이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2.3.2. 통하는 친구들에게서 안정감 찾기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출생지와 정착 기간에 따라 정체성 형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대체로 자신을 한국사람과 중국사람으로 표현하

며 북한사람과는 구분한다(양영자, 2016). 교육부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탈북학생 범주에 포함시켜 교육적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탈북학생 동아리 모임, 한국어 특별반, 방과후 활동 등 공동 학습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탈북학생으로 여기게 된다. 엄마의 탈북과 중국에서의 생활, 이주와 하나원 생활, 한국 생활 정착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소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찾고, 서로 지지하며 편이 되어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탈북배경이 있는 친구를 ‘우리’,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그들’로 구분하며 경계 허물기와 유지의 전략으로 또래 관계에서 안정과 인정을 찾아간다.

연구참여자 5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친구들을 ‘일반 애들, 한국 애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탈북 친구들과 강한 유대감을 표현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과 ‘탈북’에서 찾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중국에서의 생활과 이주 과정과 현재 자신의 삶을 탈북친구들만이 이해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통하는 게 있으니까. 일반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꺼내잖아요. 다른 애들은 상처 있는 말 그냥 다 한다고 해야 할까요? 몰라요 한국 애들은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떻게 넘어왔는지 모르니까 막 대해요. 일반 애들은 막말 하면서 친해지는데 탈북한 애들은 그런 게 잘 안 돼요. 낮가리거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안 친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탈북하지 않은 애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의 뿌리가 북한과 중국에서 온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탈북민이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다. 알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스스로 탈북민임을 밝힐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한국 친구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구참여자 5와 동일하게 한국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스토리, 즉 탈북에 대한 공감은 탈북친구들과만 나눌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

녀들이 고정된 하나의 정체성에 간혀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다르게 해석하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애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절대 자기 입으로 탈북민이라는 얘기를 죽어도 꺼내질 않아요. 이게 솔직한 얘기고, 선생님들도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탈북민인거 우리 선생님이 몰라요. 내가 학교에서 탈북민인거 친구들이 알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탈북민이라는 게 애들한테 알려지면 애들이 평가할지 모르니깐요.” (연구참여자 2)

“애들한테 평소 얘기하지 못한 것들, 탈북 애들한테는 어차피 일상이니까 얘기하면 약간 어? 이렇게 특별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 잘 맞더라고요. 가족들도 비슷비슷하고 이러니까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7과 8은 탈북 배경보다는 출생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 친구 관계에서도 중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경향을 보였다. 친구 관계에서 엄마의 탈북이라는 공통의 경험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말이 통하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와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탈북학생 지원 교실인 어울림 교실에서는 중국에서 온 학생들과 북한에서 온 학생들의 친밀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중국에서 온 선후배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과 ‘우리’ 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지내고 있었다. 영유아기에 한국에 온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탈북친구와 한국 친구를 나누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중국 친구와 북한 친구들로 나누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란 상관 없어요. 우린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제가 아는 중국 친구들은 다 나처럼 생각

해요. 초등학교 때도 혼자 지냈어요. 다른 애들이랑은 할 말이 없어요. 중국말로 하면 하고 싶은 얘기 많았어요. ○○가 2학기 때 전학왔는데 그 때 중국말로 얘기하면서 친해졌어요. 센터에서도 중국말 할 줄 아는 애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요. 북한 애들과고는 생각이 달라요. 공부하는 것도요.” (연구참여자 7)

2.3.3. 다름이라는 시선에 대한 거리두기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탈북민’이라는 이 름표를 달게 되며 특별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학교 외 수업시간에 참여하는 탈북학생 동아리, 원격 학급 수업시간에 따로 나와 받는 한국어 수업 등 다른 아이들과는 구별된 활동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다름’이 강조된다. 어려운 가정형편, 힘겨운 이주 스토리, 생사를 건 엄마의 탈북 경험이 이들을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다르게 보는 시선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을 ‘다름’의 시선으로 보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었다.

“특별하진 않아요. 저희한테는 특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 같아요. 사람들이 일본에서 지내거나 미국에서 지내는 거나 똑같은데 탈북만 특별하게 보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는 여기서 잘 살고 저기서는 저기서 잘 살고.” (연구참여자 4)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이주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힘들어서 온 거니까. 남들 눈에는 특별하고 신기해 보이겠죠. 그냥 넘어와서 잘 지내는 거니까. 왜 굳이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지? 북한에서 온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른 게 없으니까 한 번도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5)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자신을 탈북민이라 여기면서도 한편으

로는 탈북민으로 대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고, ‘탈북’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탈북민을 특별한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약자로 대하는 시선, 문제가 많은 집단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애들이 북한에 대해 안 좋은 얘기 하면 솔직히 좀 찻찻하긴 한데 그냥 어~ 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그건 생각 차이니까요. 너그럽게 이해해요. 약간 선 넘을 때는 니가 그런 말 하는 거 북한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너 주변에 북한 사람 있으면 어찌려고? 말 조심해야지 하고 얘기를 해요.” (연구참여자 2)

“탈북청소년 그런 명칭을 사용해야 할 때는 사용하지만 그런 기준이 필요없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곳에 갔을 때 굳이 탈북청소년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미디어나 그런 데서 보면 너무 탈북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불쌍하다, 돈이 없다, 우울하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많거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 한국 청소년들처럼 똑같이 지내는데 굳이 그런 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한편 ‘다름의 시선’은 타자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스스로가 보인 태도이기도 하다. 한국 친구는 나와 다를 것이라는 선입견이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5에게서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탈북의 테두리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성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태도는 탈북 배경이 없는 다른 친구들과의 교제를 어렵게 느끼게 하고 친구 관계의 폭을 좁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국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때의 경험을 ‘새롭고 설레고, 뿌듯하다’고 표현할 만큼 자기인식의 틀을 깨고, 관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다.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모르니까 거의 초등학교 때는 책이랑 지낸 것 같아요. 애들이 먼저 말 걸어주면 조금 하다가 아니면 그냥 책 읽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 친구 한 명 생겼어요. 말이 좀 통하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북한 친구야?) 아니요 그냥 한국 애예요. 처음으로 한국 애랑 친해졌어요. 괜찮은 거 같아요.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게 많지는 않지만 얘기는 통해요. 첫 경험이에요. (활짝 웃으면서도 수줍어하며) 새롭고 너무 좋아요. 친구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제 엄마보다 더 좋아요.” (연구참여자 5)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한국사회 문화적응 태도를 전략적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중국 혹은 탈북 신분을 감춤으로써 한국 친구라는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태도를 갖기도 하지만 정서적 교류는 주로 탈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정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자신의 소속감을 어디로 여기는가는 개인의 성향, 주류 집단의 반응, 개인의 경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개념화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 협상인 것이다.

3. 소결

새로운 나라로의 이주는 이전 삶의 양식 위에 전혀 새로운 문화를 덧입히는 독특한 경험이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탈북민 신분인 엄마와 중국에서 숨겨진 존재로 살아오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엄마와 함께 제3국을 거쳐 힘들게 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엄마의 초청으로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이주를 시작하게 된 연령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이주의 전 과정에 걸친 경험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주 전 중

국에서 엄마의 부재를 경험하며 지냈으며 평범하지 않은 엄마의 삶을 보며 어렵듯이 ‘탈북’을 이해하게 되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친구 사귀기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언어장벽과 탈북 혹은 중국인이라는 이름표가 한국 친구들과의 사귄에 장애로 다가왔으며 언어의 한계로 인한 친구 관계 맺기와 학습의 어려움, 단절되어 지냈던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으로 남아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이주 환경에서 갈등과 좌절, 분리와 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였다. 이들이 마주한 환경은 새로운 가족, 낯선 학교, 자신과는 다른 ‘한국 아이들’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정체성을 협상해가고 있었다. 정체성 협상은 개인과 가족, 사회 영역에서 자신이 당면한 문제적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V.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 경험과 정체성 협상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연구는 탈북청소년 연구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2015년을 전후로 점차 북한 출생자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실태조사 중심의 논의에서 교육권, 한국 생활 적응, 가족 경험 등으로 연구 내용이 확장되고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험을 적용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제 발견과 대안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적응 과정에 나타난 주체성과 다양성을 정체성 협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위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I장에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이주 경험과 정체성 협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대상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의 흐름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의 미흡함, 법적 지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존재 규정의 문제, 연구 주제의 다양성 요구를 발견하였다. 둘째, 이주 경험과 정체성 협상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여 이주민의 문화적응, 문화정체성, 정체성 협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이주민은 새로운 나라의 문화를 접촉하며 문화변용의 과정을 거치며 문화적응을 한다. 문화적응은 주류 문화에 수동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혹은 집단의 선택적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

짐을 볼 수 있었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이주 경험과 정체성 협상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한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에 따라 설계되어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개인 및 그룹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개요, 연구참여자, 자료수집 및 분석, 윤리적 고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I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가 모두 미성년자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연구윤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으며 보호자와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확인한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진행할 때마다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참여자 동의를 얻어 녹음과 메모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Ⅳ장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 경험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중심의미를 도출하였다.

이주 전 중국에서의 삶은 엄마의 부재와 탈북민의 현실을 마주하는 회색빛 삶이었다. 살림을 꾸리기 위해 장시간 출타하는 엄마가 없는 사이 이들은 아빠의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돌봄의 공백을 경험하며 성장하였고 탈북민 자녀 신분으로 인한 불안한 삶과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함으로써 탈북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한국 입국 직후부터 사회적 관계가 시작된 시기인 이주 초기에는 낯선 한국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가 중심의미로 나타났다. 엄마와 동반 입국한 연구참여자들은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중국사람’과 ‘북한, 혹은 한국 사람’으로 나뉘는 것을 경험하며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언어의 한계와 출신국의 차이로 인해 친구 사귀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정착기에서는 언어의 장벽과 상처를 안고 있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 도출되었다. 이주 연령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는데 한국어의 한계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학습과 친구 사귀

기의 어려움이 되었다. 또한 오랜 시간 단절된 가족의 재결합,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의 동거에서 오는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은 개인, 가족, 사회의 세 가지 범주에서 의미가 도출되었다. 개인 영역에서는 이주의 전 과정에 걸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이해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이주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정문제와 사춘기로 방황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강점을 발견하는 긍정적 경험을 하였다. 또한 출생국인 중국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한국을 모두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여기며 영토경계를 초월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가족 영역에서는 ‘미운 가족’을 가슴에 품고 가족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탈북민으로 살아가는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삶을 처음부터 기대하고 온 것은 아니지만 엄마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 왔지만 여전히 엄마의 빈자리는 크다. 홀로서기의 삶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한발 물러나 자신의 의미를 새롭게 찾도록 했으며 가족과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정체성 협상을 보여주었다.

사회 영역에서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기로 정체성을 협상해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 중국어를 매개로 친구 사귀기 전략을 선택하였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가족과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과 언어 및 문화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에게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았다. 자신들을 다르게 보는 한국 사회의 편견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전략을 취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다.

2. 논의 및 제언

아동청소년기의 이주는 자아정체성, 국가정체성, 언어정체성, 사회문화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접하는 문화차이는 문화변용의 단계를 거쳐 문화적응의 형태로 나타난다. 문화적응은 주류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삶의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이주 경험과 정체성 협상에 대한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다양하고 개방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한국 사회는 이주민들의 심리정서적 혼란과 사회적 관계에서 겪는 소외와 차별, 한국 사회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한계에 부적응이라는 성적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주민의 이주 경험은 획일화된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응과 부적응,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 없다.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의 노력, 문제적 상황마다 선택하는 전략적 행동을 적극적인 협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개방적 사고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힌 것과 같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이주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결을 만들어왔다. 또한 개인, 가족, 사회의 영역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변화시키며 환경에 적응해왔다.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과 한계에 집중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현재의 삶을 영위해가려는 모습을 주체적 태도로 해석하였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연구는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법제도와 교육여건, 가족 관계,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갑작스런 이주로 인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개인과 집단의 구체적 상황을 깊이 관찰한 결과 개별적이고 독특한 대응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입국 연령, 입국 초기 경험, 학교 편입 과정과 또래 맺기 경험에 따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집단으로 인식하는 접근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 배경과 정착 과정, 성장 배경과 지지체계, 가용자원 등 개인의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들의 적응 방식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개인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다양한 삶의 요소를 하나씩 알아갈 때 가능하다. 본 연구자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면담을 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근거하여 이들의 삶을 판단하였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며 불성실하고 의욕이 없는 학생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답답함,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에서의 캄캄한 미래, 가족과의 복잡한 관계, 친구들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삶의 문제를 혼자서 풀어가고 있었다. 자발적 선택 없이 부모에 의해 이주를 오게 된 이들은 심리적, 사회문화적 적응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다양한 수준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는 교육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경험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건강하게 구축해가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개인적, 가족 및 사회적 환경을 지원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 주류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획일화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이주를 직접 경험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사회에 부여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사회 구성원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다양성을 가진 주체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이중언어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이슈인 이중언어 능력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교육 현장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통역, 외국어 학습봉사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이중언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적 실천의 장(場)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외국 학교나 외국의 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각 학급마다 배치되어 중국어 통역을 해주고, 학교 행사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 인식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개인적으로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이들에 대한 친구나 교사, 선주민들의 편협된 시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학습 지원을 위한 충분한 한국어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주민의 언어문화적응은 새로운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통합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주아동의 경우 일상적인 대화에 필요한 언어는 2년이면 학습하나 이주국의 정상적인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Cummins, 2008).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한국어 부족으로 인해 학습 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것이 누적되면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결국 공부를 포기하여 진학과 진로 준비까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원격 학급에서 분리되어 실시되는 수업은 오히려 한국어 수업을 거부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방과 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교과 학습 지원을 병행하는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부모 자녀간 정서적 공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실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엄마 혹은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정서적으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기관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지역아동돌봄센터나 이주민지원센터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며 식사와 교육, 교과 활동 이외의 지원을 받는다. 주양육자의 장기간 근무환경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자녀와의 정서적 거리로 인한 대화 단절, 가족 구성원과의 정서적 교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이들 가정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 개별상담 및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친구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요구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마음이 잘 맞는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것으로도 보람을 느낀다. 그만큼 이들에게 한국 친구 사귀기는 가장 어려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를 위해 1:1 멘토링, 학습 짝꿍, 방과 후 활동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제공된다면 학교 적응과 학습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친구뿐만 아니라 이주 배경을 가진 선후배들과의 만남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국어로 마음껏 의사소통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도 모국 문화와 정서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을 통해 소통의 한계를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적 교류의 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 8명 중 7명은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녀서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비슷한 연구참여자 집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다양한 환경의 경험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밖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연구참여자로 포함하여 다양한 경험과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험의 주체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뿐만 아니라 이들과 직접적인 상호관계를 맺는 친구, 교사, 부모 또는 주양육자의 경험을 다루는 다각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보석(2018).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권 연구. 비교법학, 29, 1-19.
- 고은혜, 배상률(2017). 부모와의 별거경험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4), 211-232.
- 김기화(2019). 연구방법과 학위논문 작성의 기초. 서울: 박이정.
- 김두연(2019). 중국출생자를 위한 지원과 탈북학생 지원 효과성 제고, 한국 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461-471.
- 김명선(2015).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경험 분석. 열린교육연구, 23(4), 45-74.
- 김명선, 이동훈(2013).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20(1), 39-64.
- 김성경(2018).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적응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막막함에서 자기긍정으로 변화하기. 한국청소년연구, 29(3), 129-157.
- 김소리, 문소영(2018). 창작음악극 중심의 음악치료가 제3국 출생 탈북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연구, 21, 279-299.
- 김영선(2017). 중도입국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학부모의 자녀교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75-80.
- 김영순, 임지혜, 정경희, 박봉수(2014).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10(3), 36-96.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임한나(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영순(2020). 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과 정체성 협상. 사회통합 총서6. 북코리아. 성남: 북코리아
- 김유연, 손명아, 김석호(2018). 가족과 사회적 관계가 탈북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4(1), 179-205.
- 김윤나(2014). 제3국 비보호 탈북청소년의 인권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7(3), 21-39.
- 김정림, 차현지(2012).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비보호 청소년)의 보호

- 및 지위개선을 위한 법적방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등의 검토, 통일과 법률, 11, 127-161.
- 김정희, 김영순(2018). 재한 중국동포 유학생의 문화적응 과정을 통해 본 정체성 협상과 그 의미. 겨레어문학, 60, 286-809.
- 김향숙(2017). 한 대안학교의 중국출생 북한이탈학생들의 한국 사회통합 양상: 통합교육 측면에서 사례연구. 통합교육연구, 12(1), 211-235.
- 김현경(2015).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아동청소년)의 삶의 제한성으로부터 가능성 연계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출신 양육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1), 161-200.
- 도지완, 황명진(2020).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가족 경험 변화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31(1), 169-190.
- 송원일, 유진이(2020). 이주배경 귀화청소년의 한국인 정체성 갈등과 대응전략.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5(2), 1-26.
- 서덕희(2013). 이주민 집단에 따른 이주 배경 학생의 학교생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6(2), 23-58.
- 성지영(2018). 탈북청소년의 삶과 정체성에 관한 예술기반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9).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옥(201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기초조사 연구. (재)무지개청소년센터.
- 양영자(2016).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문제: 문헌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167-190.
- 양혜린, 고윤정, 김옥수, 박연미, 이혜란(2017).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학교사회복지, 39권, 205-229.
- 연보라, 김경근(2017). 탈북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27(1), 1-30.
- 오원환(2011). 탈북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인수, 노은희(2019).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맥락적 이해 및 개입전략. 교육학연구, 58(1), 1-31.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윤새은임, 유진이(2017).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다문화아동 청소년연구*, 2(1), 57-93.
- 윤혜순(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1(11), 125-149.
- 이기영(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5, 175-224.
- 이기영, 김민경(2015). 한국거주 탈북배경청소년의 다양성에 따른 지원정책의 분석과 함의. *동북아연구*, 30(2), 93-129.
- 이민경(2016).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재구성. *교육사회학연구*, 26(1), 101-120.
- 이부미(201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경험 및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23-57.
- 이수진, 김현주(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3(5), 205-235.
- 이은혜(2018). 두 탈북청소년의 학교교육 경험과 정체성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춘호, 전득안(2015).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가정 자녀의 생활 실태 연구. *한국평화연구*, 16(4), 143-163.
- 이혜경, 이진영, 설동훈, 정기선, 이규용, 윤인진, 김현진, 한건수. 이민정책론. *한국이민재단총서 1*. 서울: (주) 박영사
- 이희영(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44(1), 201-241.
- 전혜림(2014).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남한 사회 적응.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정주영, 박정란(2016).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입국 전후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8(3), 219-250.
- 정진경 · 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 23(1), 101-136.
- 조정아(2014). 탈북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현대북한연구*, 17(1), 101-155.
- 조진경(2016).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방과후 영어수업 참여경험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현정(2019).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22(4), 119-149.
- 조혜영(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 및 적응지원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4), 311-335.
- 최대희(2014). 중도입국청소년 정체성 연구를 위한 일고찰. 다문화와 인간, 3(2), 133-165.
- 최희, 김영순(2020). 북한이탈여성의 문화적응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 개인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4(1), 1-21.
- 한하림(2014). 제3국 출신 탈북 아동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P학교 소속 탈북 아동과의 면담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3, 121-143.
- 황미혜(2019).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중언어사용 활용 방향. OUGHTOPIA, 33(4), 111-144.
- 남북하나재단(2016). “북한이탈주민의 ‘착한(着韓) 통계’ 시리즈” : 북한이탈주민가족편. 2016년 12월 제15호. <https://www.koreahana.or.kr/2020.9.2.검색>
- 남북하나재단(2020). 북한이탈주민 관련 학술 논문 목록. https://www.koreahana.or.kr/data_room 2020.5.26. 검색
- 무지개청소년센터(2016).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20.10.04. 검색.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9). 2019 탈북학생 통계 현황. <http://www.hub4u.or.kr/> 2020.5.20. 검색.
- 통일부(2017). 보도자료.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지원 관련 제도개선 현황 <https://www.unikorea.go.kr/> 2020.09.01. 검색.
- 통일부(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현황. <https://www.unikorea.go.kr> 2020.05.26. 검색.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2020). 문화변용과 적응(이대회 역). 서울: 에코리브르.
- Bosher, S. (1997). Language and cultural identity: A study of Hmong students at the postsecondary level. Tesol Quarterly, 31(3), 593-603.
- Castles, S. & Mark J. M. (2013). 이주의 시대(한국이민학회 역). 서울: 일조각.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7). 내러티브 탐구(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2000 원저 발간)

- Creswell, J. W. (2015) 질적연구 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3rd ed.).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2013년 원저 발간).
- Cummins, J. (2008). BICS and CALP: Empirical and theoretical status of the distinction.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2(2), 71-83.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Giddens, A. (1995).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권기돈). 서울: 새물결. (1991원저 발간).
- Oberg, K. (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Parctical Anthropology*, 7, 177-82.
- Padgett, D. K.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유태균 역). 서울: 나눔. (1998년 원저 발간).
- Sarup, M. (1996). *Identity, Culture and The Postmodern World*. 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
- Hall, S., Held, D., & McGrew, A. G. (1992). *Modernity and its Futures*. Cambridge: Polity, 273-316.

부록

<부록 1>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학부모용>

<연구참여 설명문>

연구제목: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에 관한 질적연구

연구책임자: 인하대학교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김은희(010-8719-1108,
22191211@inha.edu)

공동연구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김영순
(032-860-7867, kimysoon@inha.ac.kr)

본 설명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내용은 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하대학교에서 다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입니다.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에 관한 질적연구”로 학교 수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학생이름)의 참여를 요청드리며,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탈북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는 반면에 중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입니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한국 입국 전후의 경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정체성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상 참여 기간

연구기간은 IRB(연구 윤리에 대해 심사하고 승인하는 기관입니다) 승인 이후 1년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7월부터 10월 중에 1-2회 연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략적인 참여자 수

연구에 참여자는 사람은 만 14세에서 24세에 해당하고 중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으로서, 5-6명 정도가 참여할 것입니다.

연구 절차

우선 연구원이 부모님과 해당 자녀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참여 동의서를 받습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후에는 연구원이 귀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은 1-2회 정도 이루어지며 1회 진행 시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 본인과 부모가 연구 참여를 허락하게 되면, 연구자는 학생을 만나 7-8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면담 내용은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허락을 구한 후 녹음을 합니다. 면담 장소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교실이나 집 근처 학생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연구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과 이로운 점

본 연구에 참여할 때 특별한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 및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면담을 위해 1-2회 연구자를 만나고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자녀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상품(매회 면담시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선물 교환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본 연구참여를 통해 이주 과정을 거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발적 참여 및 철회의 자유

연구의 참여는 자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처음에 참여를 하기로 했다가도 중간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참가를 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어도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성적을 받을 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귀하의 자녀가 연구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연구자 측에 의해 연구 참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발설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이후에도 연구자는 연구자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며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귀하는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언제라도 문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연구책임자 김은희(010-8719-1108)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안전 및 권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032-860-9158)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김은희 드림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에 관한 질적연구

-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었으며, 연구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본인은 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스스로 선택하여 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 본인의 자녀는 스스로 선택하여 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 본인의 자녀가 연구대상자 선발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 및 본인의 자녀는 연구 기간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자녀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의 자녀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본인 및 본인의 자녀의 연구 참여를 요청하여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았습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이름: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연구 책임자 이름: 김은희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록 2>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학생용>

<연구참여 설명문>

연구제목: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에 관한 질적연구

연구책임자: 김은희(010-8719-1108, 22191211@inha.edu)

공동연구원: 김영순(032-860-7867, kimysoon@inha.ac.kr)

본 설명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와 내용은 연구자 선생님에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무엇을 연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하대학교에서 다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입니다.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에 관한 질적연구”로 학교 수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학생이름)의 참여를 요청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탈북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중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입니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의 한국 입국 전과 후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학생들의 정체성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출생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연구에 참여하는 기간은 IRB 승인 이후 1년 기간입니다. IRB는 연구 윤리에 대해 심사하고 허락하는 기관입니다.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기간은 7-10월 중 1-2회입니다. 이 기간에 연구자 선생님을 1-2회 정도 만나 1시간 정도 면담을 하게 됩니다. 연구 참여 인원은 5-6명이 될 것입니다. 학생 본인과 부모가 연구 참여를 허락하게 되면, 선생님이 제시한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연구자 선생님이 학생(참여자)의 이주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7-8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참여자는 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면담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선물이 있나요?

본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매회 면담마다 2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모바일 선물 교환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연구에 참여할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본 연구에 참여할 때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과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면담을 위해 1-2회 연구자를 만나고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담 장소는 학생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교육 장소(센터나 학교), 또는 부모님과 학생이 알고 있는 집 근처 편안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면담 시간에 맞추어서 연구자 선생님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 비밀은 지켜지나요?

연구를 위해 모은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이용되며,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번호로 정보가 관리되어 여러분 개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 선생님들이 회의나 논문을 통해 연구에 대해 발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이름이나 생일 등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연구 자료를 모으기 위해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할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는 3년 동안 보관하며, 이후에 모든 자료를 삭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학생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는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나요?

연구의 참가는 여러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처음에 참여를 하기로 했다가도 중간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참가를 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어도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성적을 받을 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이번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행과정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연구 책임자 김은희(010-8719-1108)에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안전 및 권익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032-860-9158)에 확인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김은희 드림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에 관한 질적연구

나는 이 연구에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해 담당 연구자 선생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연구 기간 중 언제라도 자유롭게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나의 학교생활을 포함해 다른 어떠한 나쁜 일도 생기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 언제라도 담당 연구자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부분에 서명을 하면 됩니다.

■ 연구참여 학생 이름: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연구 책임자 이름: 김은희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록 3> 면담 질문 개요

질문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1. 이주 전과 이주 과정, 이주 후에 어떤 것들을 경험했나요?
2. 이주를 경험하며 나와 가족, 나의 삶과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3. 고향 생활과 한국 생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그 생활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고향에서의 경험, 한국에서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는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5.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나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나요? 그 활동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6.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그려본다면?
7. 현재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8. 한국에 정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 무엇이었으며, 그 일들을 어떻게 극복했나요(극복해가고 있나요?)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Identity Negotiation of Children Born in China of North Korean Defectors

Eun-Hui Kim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February,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ature and identity negotiations of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China. This study focused observing the behaviors that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China take when adapting to various situations and overcoming conflicts.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and related prior research of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China an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migration experience and identity negotiations.

Qualitative methodology was used for this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or three months from July to September 2020, with semi-structured, in depth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 format with eight research participants.

The migration experience of the childre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China grow up experiencing the absence of their mothers' care before moving to Korea, and face defection as migration begins. In the early days of migration, forming a relationship in a strange environment turned out to be the most meaningful experience. In the settlement period, living life with language limitations and a wounded family was considered as a barrier to overcome.

The identity negotiations of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China were conducted in various ways in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areas. In

the personal sector, self-acknowledgement was made by the children during the migration proces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cultural adaptation, they grant meaning to their experience and discovered their strength regardless of the discriminatory perspective that the society and others impose to. This led to a change in their learning attitude and school life.

In the family sector, they tried to overcome complaints and disappointed feelings about their mother, and were actively seeking their role as someone who understand and share their mothers' life and difficulties. After the migration this attitude was revised to seeking independent life away from longing for care.

In the social area, identity negotiations have been made to 'exist between us and them'. They used strategies such as asking for help and making friends in Chines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mmunication and found emotional stability by form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friends born in China. They protected themselves from discrimination by distancing themselv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sponded critically to their friends'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with various reactions.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China go through an identity transformation in the process of cultural adaptation within new cultural groups. Research on the immigration experience and identity negotiations provides a diverse and open perspective on migrants. Cultural adapt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positioning themselves in society in accordance with self-negotiated identity, and not as a perfect transformation on behavior to fit in to the level that the society requests.

In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interpreting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China as a self-reliant attitud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they face and live their current lives. The study confirmed that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China can be understood from an active and subjective perspective of identity negotiation and

cultural adaptation. We need to understand the new members of our society with respect for their identity negotiation, not forcing the social norms and expectations.

Keyword: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China, immigration experience, identity negotiation